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月)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蔣氏、中央軍廿萬에 廣西進擊을命令

李白兩氏中央不服決定、近日軍事政府組織

衝突은不可避形勢乎

【廣東二十六日發同盟】蔣介石氏는 二十五日湖南 貴州 廣東의 中央軍二十萬에對하야 廣西省進擊을 命令하얏다 廣西軍의南部湖南을 侵犯한다는 報道가頻頻히傳하고잇스나 이것은 中央의宣傳인듯하며 廣東當局에의入電에依하면 廣西軍은全州 咸陽 恭城線을第一線으로 桂林 東樂 昭平線을 第二線으로 柳州 武宣을 第三線으로主力을 桂林 梧州에 配置하고 東部省境에侵入하려는 中央軍을 迎擊하려함과如한形勢를보이고잇다

【廣東廿六日發同盟】廣東當局에의入電에依하면 李宗仁 白崇禧兩氏는 廿五日夜 總司令部에서 軍政界의 首腦部를 網羅한緊急會議를 開催하야 重大協議를遂한 結果二十五日 國民政府命令에依한 正副綏靖公署主任罷免을 拒否키로 決定하고 李白兩氏는 近日軍事政府를設立할터이라는바 中央軍과의 衝突은 避치못할形勢가되엿다 中央側은 廣西懲罰令을發하리라고 傳言되다

二十五日附國府命令으로좌와 如히任命을 發表하엿다

任廣西綏靖公署主任 黃紹竑
任廣西綏靖公署副主任 李品仙
任軍事委員會常務委員 李宗仁
白崇禧
任浙江省政府委員兼浙江省政府首席(白崇禧氏責任外지)行政院長兼蔣介石氏로하여금 首席을代理케함

또 右發令과同時에 李宗仁氏의 廣西綏靖公署主任、白崇禧氏의 同副主任及黃紹竑氏의 浙江省政府委員及首席等 各本兼職을 解任하엿다

兩廣貴州主席更迭乎

【南京廿六日發同盟】李宗仁、白崇禧兩氏에對한 國民政府의 任命에對하야 아즉何等의 後報이업스나 大勢이미決定되야 受諾안하면 下野할수밧게 업슬듯하다 西南善後處置에 對하야는 廬山會議에서 一切를決定코저 目下蔣介石氏는 廬山에 多數의要人을招請하여잇고 다시陳立夫 孫科 王寵惠氏等의 參加를 求하야 協議키로 되엿는데 情勢如何로는 八月初旬宣撫使로 孫科、王寵惠兩氏를 南下식히게 될것이다 또 黃紹竑氏의 廣西綏靖主任任命은 廣西省의 主張인「廣西人의廣西」의要望을 容認한것으로 廣西의 更迭에따라 廣東省主席도 結局 辭任하고 後任에는 湯永泰、吳鐵城、吳俊陞氏等中에서選定될듯하며 또貴州政府도 組織될듯하다

廣西綏靖主任 黃氏任命

李白兩氏는省外에

【南京二十五日發同盟】西南解決의 最後段階로 나머잇는 廣西善後處置에 關하야 蔣介石氏의心腹 浙江省主席 黃紹竑氏가廣西人임을 利用하야 이를 廣西綏靖公署主任으로하야 事態收拾에 當케하고 李宗仁 白崇禧兩氏는 省外에 地位를 따로裏하야 此로分離식힐方針을 取하야

蔣氏、全中統一餘勢로 北中工作開始乎

西南派의全面的沒落은二個月內實現

日中關係尖銳化未免

【東京電話同盟】陳濟棠氏沒落後의 廣東財政의 要職이 南京系要人을 擧하야 廣東財閥의 壓迫을 企圖하고 着着成果를 엇고잇는 蔣介石氏는 다시 自己의 獨裁的地位를 强固히하기爲하야 反蔣警略으로 殘存하고잇는 廣西將領의 全面的失墜工作을 進行하고잇는 即陳濟棠氏가 失脚되자 余漢謀氏에게 實權을 掌握케하고 自己心腹으로 省財政部門을 맛게하고 다시 電光石火的으로 中央要人을 各各要職에 任命하는等 對廣東工作을 完了하고 多年間 垂涎的가튼廣東海關收入其他財源도 獲得하엿슴으로 이에依하야 廣西의 財政的 咽喉를 트러쥐엿슴으로 廣東省은 財政의 關鍵을蔣氏에게 쥐운結果 그沒落은 時日問題가 되게되엿든 反蔣政權으로서 儼然한存在가 되여온 李宗仁、白崇禧兩氏는 蔣政權의 聯露容共歐米倚存政策에 反對하야 廣西省에 蟠居하야 三民主義의 傳統的精神을 如實히 把握하고全中國에 稀有의 善政을 베푸려오든바 이建設途上에 蔣氏의全中統一의 重壓에 몰니워드되여 沈沒의 域에 達한것이다 軍部方面에서는 廣西、西南派의 全的沒落은 今後二個月을 걸니지안코 事實化할것을 確實視하고 西南問題解決後 蔣介石氏는 餘勢를모라 北中政權에 干涉할 手段을 講究할것이라고 深甚한 注意를 하고잇다 그리고 蔣介石氏가 果然 北中에 在한 日本의 特殊權益을 無視하고 冀察政權의 中央化工作을 開始하야 日本의 權益을 蹂躪하려如此한 行動에 나갈時에는 斷乎히 잇슬바 蔣介石氏의 歐米依存傾向에 따라 日中關係는 今後 매우 尖銳化할듯하다

無條約時代에對應 英極東軍備强化

香港新嘉坡의防備施設擴大、兵力三倍强化

關係當局推移重大視

【東京電話同盟】最近英國政府는 歐洲大陸의 平和工作을 進行하는一面 陸海空軍軍備의 充實 就中 華盛頓、倫敦兩海軍條約의 大西洋防備制限協定의 失效對策으로 極東勢力의 原動力인 香港及新嘉坡의 防備施設擴大와 常駐軍의充實에 注力하고 잇슴이明白함으로 關係當局은 英國의極東政策施設의 準備擴張과 함께이 推移를 注視하고잇다 即日本의倫敦海軍條約脫退에 依하야 一九三七年以後 無條約時代의 出現이 明白하야 英國政府는 極東根據地防備擴大强化와 中國艦隊를 全部新式艦船으로 交替할方針을세워 着着實施하고잇는데 英國의新嘉坡防備施設은 最近顯著히進捗하야 大船渠、燃料補給所의 完成要塞의 擴充等大部分은 本年末까지 整備하도록되엿고 또 陸空常駐兵力도 强化하기로되여 新嘉坡도 現在의 常駐現兵力三萬을 三倍로 强化하야 埃及軍을 移駐하야 資料整備를 施設하기로 決定하야 空軍兵力도 亦新式 大型 飛行機五機로 編成된 一個中隊를 編成하야 本國으로부터 空輸하고 印度로부터 大爆擊隊 二個中隊를 移駐하고 다시 義勇空軍의 一個中隊를 設置하기로 되여잇다 香港에서는 近代的機械化部隊의 計畫을 充實히하고 空軍도 現在의 飛行場을 擴張强化하기로 되엿다고。

蔣氏、廣東軍에 廣西討伐命令

勢力相殺케하는一石二鳥策

廣東軍一部는不快感

【廣東二十六日發同盟】蔣介石氏의 重要命令을 가지고 二十五日廬山에서 飛行機로 來粤한陳誠氏는 余漢謀氏와 會見하야 廣東軍에對하야 西江方面에서 廣西討伐을 敢行할것을 强要하고잇는바 余漢謀氏는 不得已 此에 對하야 二十六日 越粵鐵道沿線第二、第五兩軍을 岑溪、藤城、封川方面에 出陣케하야 梧州壓迫을 命하엿다고하는바 右는 廣東軍을 廣西討伐에 利用하고 그勢力을 減殺하려는 蔣介石氏의 一石二鳥策으로 廣東軍部內에서는 蔣介石氏의 急激한 中央集權工作과 余漢謀氏의 態度를 不快히 여기는者 多數로 이미 第四、第五兩軍內部는 動搖되고 一部는 叛亂說까지 傳하는바 廣西討伐을 前提로하야 廣東軍의 動向은 注目되고잇다

動亂中의西班牙戰局續報

사라고와사向해 政府軍進擊開始

海軍은叛軍根據地再次爆擊

【바르셀로나二十六日發同盟】카타로니아政府軍은 二十五日朝來旺盛한活動을 開始하야 爲先 바르셀로나西南方 라라고ー나의 根據地를 西進하야 二十六日가스페及가나네나의 兩地를 奪還한後 餘勢를모라 叛亂軍의根據地사라고사를 攻擊코저 東南北의 三部隊에 分하야 進擊하고잇다 陸上部隊와 呼應하야空軍도行動을 開始하고 爲先레리다에 飛行場을新設하야 重爆機十臺 空軍部隊約百名의 集結을 完了하고 命令一下 사라고와사空爆의用意를 整備하고잇는데 政府軍情報에 依하면 사라고와사 叛亂軍總指揮官 나바네라스將軍은 突然二十六日午前 政府軍司令官따라스將軍에게 會見을 要請하야 사라고와사 叛軍抵抗의中止를 協議하엿다고傳한다

【마드리드二十六日發同盟】西班牙海軍의 報道는 二十六日午後모로코叛軍根據地 스ー다에 對하야 爆擊을 加하엿다

西政府戰況報道

【마드리드二十六日發同盟】西班牙內亂勃發以來 이에十日、政府軍最高當局은 國內現勢에 關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一、카탈로니아 空軍部隊는 西班牙東部 마드르요르카、라브가叛軍에 爆擊을加하야 政府潛水艦部隊로 逮捕하려면 叛軍首領을 逮捕하엿다

一、나바라地方에잇는 叛軍의首領 카바네라스將軍은 政府軍의 猛攻擊에 할수업시 國外亡命을 企圖하고잇다

一、과라과마에의 戰鬪로 叛軍은重로 二萬의 戰死傷者를내엿다

一、바다호조의 極右翼政黨首領

攻守必死로 勝敗不決

交戰이미四日間

【마드리드二十六日發同盟】叛亂軍의 主力軍에 西班牙政府는 首都北方四十五키로의 그와다라마一帶에 最後의、防衛線을 步兵部隊六千을 加하야 天險에 依하야 必死의 行動을 繼續하고 잇다 戰鬪開始以來 이미 四日 山嶽野砲의 砲列을갓코 空軍도 總動員하야 交戰하므로 叛軍도 苦戰을 覺悟하는 모양이다 마드리드市內의 殷한 雰氣는 市民은 非常한 不安에 싸이여잇다 人民戰線黨下의 義勇軍은 各各武器를갓고 敏捷히 前線에 出動하고잇다 義勇軍은 制服도미처되지못하야 寢內衣에 靑띄로 두른 奇異한 姿勢로 士氣旺盛하야 「斷然 맛시스트를 撲滅한다」는 悲壯한 決意를 示하고잇다 數百의女子義勇軍은 第五十聯隊에 編入되여 父兄을 暗殺한 叛軍을 殲滅치 안코는 生還치안는다는 意氣이다 그리고 政府側의 報道대로 政府軍이 勝利하고잇는지는 疑問이며 政府當局은 義勇軍의 食糧補給에 大奔忙中이다 그리고 政府當局에서는 特別令을 公布하야 退役將校의 現役編入을 設하엿스며 當局에서는 二十六日夜 食糧品及 藥品의 輸出을 禁止하엿다

西班牙의內亂 事態樂觀不許

米大使國務省에報告

【華盛頓二十五日發同盟】米國務長官은 二十五日 午後 마드리드의 米國大使 웨데른氏로부터 長距離電話로 마드리드在駐 米國人의 狀態에 關하야 如左한 報告를 接受하엿다

叛軍의 首都進軍과함께 마드리드市는 方今 全然退路가 遮斷되어 四十名의 米國居留民은 大使館에서 難을 避하고잇는데 모다 元氣가 旺盛하고 食糧도 今後 二週間은 充分하다 情勢는 依然 緊迫을 繼續中인데 重大事態 發生이 目前에 切迫되엿다고는 볼수업다 그러나 叛軍의 砲兵隊가 다시 首都에 接近하야 彈丸을 내리쏘게되면 重大危險이 發生될것이다 政府軍은 적어도 數日間 叛軍을 阻止할수잇스리라고 傳하나 事態는 決코 樂觀을 不許한다

對西武器輸出問題로 佛國務會議議論沸騰

【巴里二十四日發同盟】佛國政府는 國防會議에서 西班牙에對한 武器輸出 禁止를 決定하엿는데 同會議에서 델보外相 쇼탕無任相等은 金融斷交를 主張한데 對하야 코트空相等은 左翼人民戰線의 立場에서 西班牙援助를主張하야 相當히 議論이 沸騰하엿다고한다 또 右翼派는 政府에 對하야 佛國政府가 西班牙政府를 好意的으로 援助하면 歐洲動亂을 惹起할 憂慮가잇다고 警告를 發하엿다고 傳한다

西班牙叛亂縱橫觀

콤인테른決議와『人民戰線』의正體

④ 韓普容

共産黨 社會黨 산디칼리스트等 그主張을 달리하는 西班牙의 左翼陣營이 從來의小異에依한 相互憎惡의 偏僻한 態度를 버리고 그들의 共同의敵、右翼諸派의 勢力을 꺽기爲하야 大同團結下에 選擧캠페인에 當하게되엿結果 去二月의 總選擧에 左翼人民戰線의 絶對的勝利를 보게되엿다함은 前回에 旣述한바이다。

그러면 左翼人民戰線이 이가티 堅固히 結成되게된 그動機、原因、背景은 어떠한가? 카뮤리農民大衆黨首、힐·로브레스氏를 中心으로한 西班牙의 팟쇼的 右翼人民戰線이 可恐할 勢力으로 擡頭伸張되게되것이 左翼人民戰線을 結成케한 主要原因임은 周知의 事實이지마는 左派聯合의 그動機、原因、背景은 單純히西班牙一國의 國內的政治勢力關係에만 依存하는것이 아니고 여기는 思想的背景을가진 國際的 連繫가잇서서 그背後가 決코 單純치안타。

뭇솔리니의 伊太利와 히틀러의 伯林獨逸帝國이 對內對外的으로 强力的國策 侵略的外交가 奏함 그成功을 齎來하게되자 近來世界的 大恐慌襲來에 經濟的으로 苦悶을 當하게되었資本主義的諸國家에는 팟쇼的勢力이 急激히 擡頭하야 全世界의 社會主義化時代를 想像하기前에 먼저 全世界의 팟쇼出現時代를 豫想하게 되리만큼 팟쇼勢力의國際的 風靡를 보게되엿다。今日 팟쇼勢力의 威脅을 밧는나라는 佛蘭西、西班牙뿐이아니다。墺太利도 그러하며 匈牙利도 亦然하다。日本이나 英國이나 米國가튼나라에서도 팟쇼的勢力擡頭를 말하게되엿다。

팟쇼勢力의 世界的風靡에 對하야 누구보다도 致命的 脅威를 늣기게되는者는 蘇聯을 祖國으로한 全世界의 프로레타리아ー트이다。팟쇼勢力이 이대로 進展되다면 全世界의 左翼勞働運動은 自滅的最後를 가지게될것이 明白한 同時에 左翼勞働運動의 生命을 살리고 그長成을 圖謀하려면 먼저 무엇보다고 팟쇼勢力을 抑壓하지안코면안될 階段 모멘트에 直面하게되엿다。

그러하야 去年 콤인테른第七回大會에서 이것이 重大問題가되여 結局 反팟쇼的 統一戰線結成을 決議하고 第三인터내슈낼(國際共産黨)에서 從來에 仇敵視하던 第二인터내슈날(國際社會黨)에 秋波를 보내여 國際的으로 左翼陣營의 大同團結 實現에 邁進하게되야 各國에 人民戰線(民衆戰線 또는 大衆戰線)結成을 보게되엿다。

人民戰線이라는말은 今春佛蘭西및 西班牙의 左翼聯合戰線의 勝利를 契機로 政治的勢力分野를 表示하는말이나 게包含된 意味는 廣大하야 것은 一種의 政治運動인 同時에 思想的表現임은 上述한바에 依하야 明瞭히알수잇다。

第七回콤인테른大會의 左翼聯合의 反팟쇼的決議는 佛西兩國의 今春總選擧에依하야그 第一效果를 내인同時에 所謂『人民戰線』의 正體가 一般資本主義社會에드러 나게되엿다。即 佛國總選擧에잇서 人民戰線이 壓倒的勝利를 보게되자 歐洲諸新聞은 人民戰線勝利의 裏面에 리온·트로츠키ー氏의 暗躍이 잇는事實을 報道하게되엿다고 西班牙 總選擧에잇서 亦是 人民戰線이 大勝하게되자 英佛新聞에는 그背後에 콤인테른에서 西班牙에 派遣한 伊太利共産黨員 에르코리、匈牙利의 赤色猛將 베라쿠인等諸氏의 暗躍이잇는 事實을 指摘하엿슴뿐아니라 佛蘭西 一新聞은 莫斯科에서携行한 現金額까지 報道하엿다。以上諸事實에 비추어『人民戰線』의 그正體가 무엇이며 그背後가 어떠한가함은 大槪알수잇스리라고 생각되거니와 佛西兩國에잇서서 人民戰線의 이니시어티ー브가 共産黨에잇는事實이라는가 이番 西班牙叛亂에際하야 蘇聯및 佛國人民戰線內閣에서 西班牙政府를 積極的으로 援助하려는 態度를보엿슴에 反하야 伊太利와 獨逸에서 積極的으로 此에 反對를 表示하고잇다는 事實은『人民戰線』正體를 解得하는데 도움이되는 同時에 西班牙 今回叛亂의 推移를 論하는데잇서 注目할 事實이라하게다。

廿三日 西班牙政府가 英佛兩國에對하야 叛軍鎭壓에 援助를 要請하엿스나 佛國은 即時 多數의 軍用機를 마드릿드로 보내엿다。또 叛軍總帥 프랑코將軍의 發表에依하면 蘇聯油送船이 西班牙政府軍에 重加하엿다한다。他面에잇서 伊太利政府는 萬若 佛西兩國人民戰線內閣間에 連帶共助的關係가 確立되면 地中海上 勢力均衡에 變調가 생긴다는理由로 絶對的反對를 表示하고 獨逸政府도 居留民保護라는 美名下에 廿四日에 이미 戰艦一隻을 派遣하고 二十五日에는 外國航海中에 各商船에對하야 事情이 許하는限 迅速히 西班牙로 廻航하라는 命令을 發하엿다。事態가 이와가티 尋常치안케 展開되려함을 본 佛國國務會議는 廿五日 對西班牙 武器輸出不許可案을 可決하야 國際關係의 險惡化防止에 努力하고잇다。

西班牙動亂이 어느便의 勝利로끗지 速히 鎭靜만되다면 이問題도 이以上 擴大되지안을것이나 如何間 西班牙政府의 英佛에의 援助要請으로 이미 全歐洲가 人民戰線國對 팟쇼國對立으로 兩分의現象을 示하엿다는것은 일즉이 보지못한 注目할 新現象인 同時에 이對立的現象이 今後 歐洲의 國際政局動向에 重大한 關係를 먼는로 役割을 擔出할것이다。(續)

(寫眞은 스타ー린氏와 트로츠키ー氏)

人事·集會

◀韓悌泳氏(平壤師範學校敎諭)廿五日入京 貫鐵洞和盛旅館에
◀李崇寧氏 上同
◀山田忠次氏(遞信局長)新任人事次來社
◀柳生圖書課長=二十六日午後三時京城驛發大田에 出張二十八日夕歸任豫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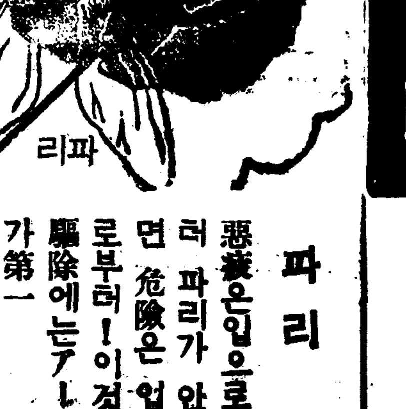
八面鋒

◇廣東의叛將 余漢謀로하야금 廣東軍을 쉬여서 廣西軍을 攻擊하라고 命令。
◇將帥는 謀叛했다할지라도 兵卒끼리야 友軍이아닌가、蔣介石의兩廣中央化工作도 이지경이라하면 밋칠이빈는노릇。
◇지금 一步를 그릇하면 廣田內閣의 運命이 危殆하다는 形勢。
◇庶政一新하기도前에 內閣부터一新하자는 말인가。
◇三長官會議劈頭 肅淸後의 陸相軍首人事의 첫솜씨가 八月一日에 發表될豫定。
◇時局이 重大한때라 이번에야말고 肅軍의 實行이 注目되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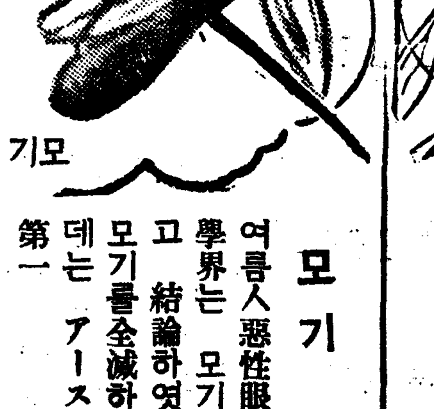
強力殺虫剤

アー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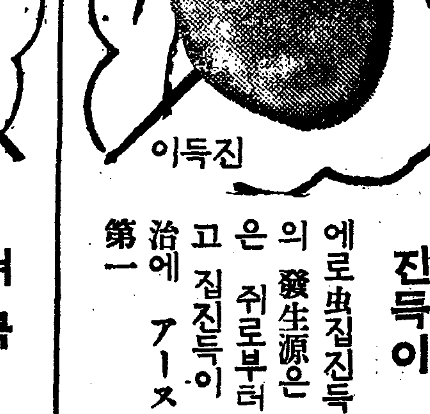
精選된原料를 다시 嚴正한 化學的試驗에依하야 檢定한 日英佛伊의專賣特許製法에依하야 精巧完備된工場에서 製造하야 製品은 一一히 規格檢定에依한試驗을 經過하야 出荷함으로써 家庭에서라도安心하고 使用할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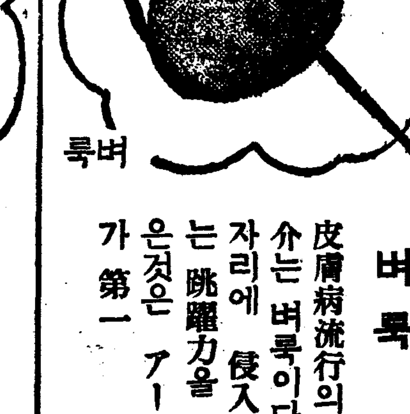
파리
惡疫은입으로부터 파리가 안즈면 危險은 업으로부터! 이것의 驅除에는アース가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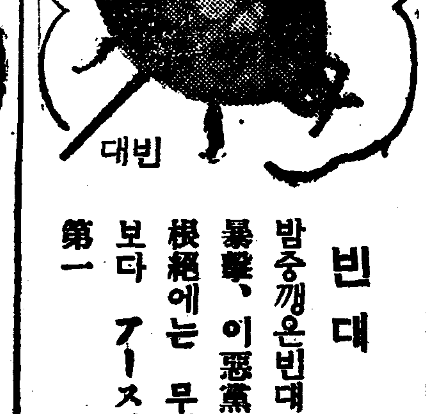
모기
여름人 惡性眼病 學界는 모기라고 結論하엿다 모기를全滅하는데는 アース가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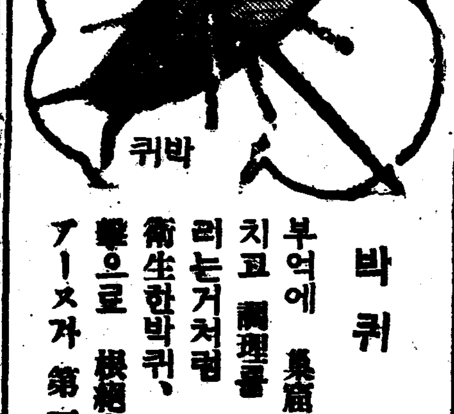
진드기
에로虫집진드기의 發生源은 숙은 쥐로부터라고 집진드기退治에 アース가 第一



벼룩
皮膚病流行의媒介는 벼룩이다、자리에 侵入하는 跳躍力을 끈은것은 アース가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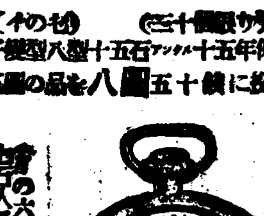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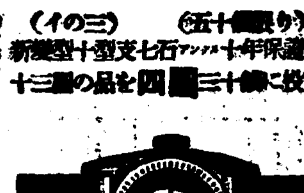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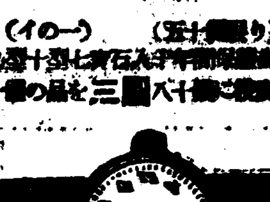


빈대
밤중깽은빈대의 暴擊、이惡黨의 根絶에는 무엇보다 アース가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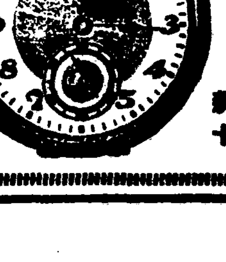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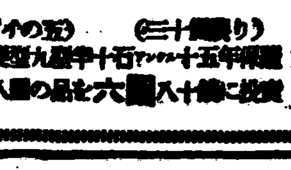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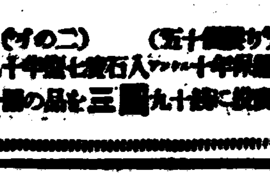


바퀴
부엌에 巢窟을 치고 調理를 노리는거처럼 非衛生한박퀴、一擊으로 根絶은 アース가 第一

(イ)實用時計 機械スイス 側クロー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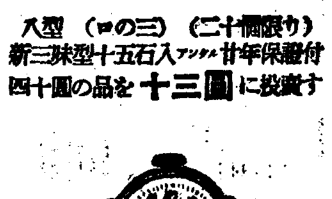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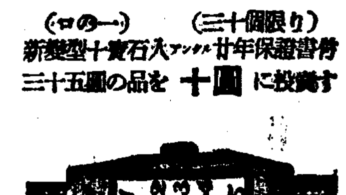




(イの一)(五十個限り) 丸十型七石實入アンクル十年保證書付 十圓の品を三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三)(五十個限り) 新機械十型七石アンクル十年保證付 十三圓の品を四圓三十錢に投賣す
(イの七)(三十個限り) 切子硝八型十五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 廿五圓の品を八圓五十錢に投賣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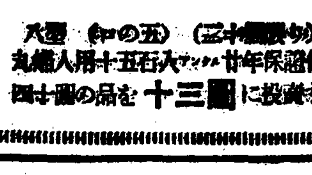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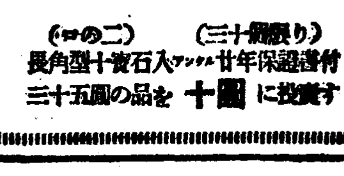




(イの二)(五十個限り) 丸十型七石實入アンクル十年保證付 十圓の品を三圓九十錢に投賣す
(イの五)(三十個限り) 新機械九型十石アンクル十五年保證付 十八圓の品を六圓八十錢に投賣す
(イの六) 十六型懷中時計 七石入アンクル十五年保證付 十三圓の品四圓五十錢に投賣す

(ロ)高級時計 機械スイス國産 プラチナ側九型

(ロの一)(三十個限り) 新機十型實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三十五圓の品を十圓に投賣す
(ロの三)(二十個限り) 八型 新三球型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付 四十圓の品を十三圓に投賣す

(ロの二)(三十個限り) 長角型十實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書付 三十五圓の品を十圓に投賣す
(ロの五)(二十個限り) 八型 丸細入用十五石入アンクル廿年保證付 四十圓の品を十三圓に投賣す

以上堅牢正確無比의時計를 流資處分臨時奉仕로서 只今부터十日以內에 申込하시는분에限하야 右의拾值로投賣한다、葉書로申込次第 代金引換으로 發送한다 十日間內에賣盡되는境遇는容恕하여주십시요

東京市杉並區荻窪本通一
東洋時計會社
電話荻窪二三三番・振替東京一九一六一番

七月廿三日부터晝夜 青春座公演(第三週)
林仙圭…作 사랑에속고돈에울고 四幕五場
洛山人…作 喜劇 헛수고햇소 二場
西大門町 東洋劇場

七月二十七日부터封切 納凉特別大興行 空前無比의名畫封切
廿世紀폭스社超特作日本版 雷雨의 殺人
銃火의 勝利
鳥伏せ頭巾
優美館

連日繼續하는降雨
黃平兩道가中心
今年農事의大憂解消
穀物의成長에감치는甘露水

수일래의비가 경성만은 이십륙일오후부터멋고 구름만 오락가락할뿐으로 며을것지는안흣나 서부조선일대에는 이십칠일아침까지 계속하여내리고잇다 그동안 비는 중부조선이 제일만히오고 그중한밥이심하고 비가적게온다튼 황해도와평안남도일대도 수일간을두고 하로평균이십미리내외비가와서 모다한하면적으로 대온자 오십미리 만불갓은 휼칭십미리는되엿다 이것으로 흡족하다는정도는아니나 일반작물은 그만하면 대략만족한터이고 수전은 이왕 이앙을못한곳은 할수엄다해도 이앙을 필하엿든곳은 논에 물이괴이어 금후 성장에는 당분간 지장이 업슬터이다 그러고 비는아직도평남과 황해도에계속하여 오는터임으로 대체의농사는 우선곤란은 면은셈이다 그러고 이십칠일아침현재로지난하로동안의 각지우량을 보면 다음과갓다

◆仁川 五 ◆京城 一四
◆平壤 二四 ◆元山 六五
◆新義州 一四 ◆城津 二四
◆中江鎭 一 (單位미리)

各地에降雨洽足
—平均四十粍、尙今降雨繼續—
涸渴地獄을完全一掃

【平壤支局電話】 한발의정각지대(頂角地帶)평남일원에 갈우가잇서 한불을어려 비를고대하든 일반농가에서는 경앙가를불으며 그동안 찌프려오든수미를 펴기 시작하엿다함은 각보한바어니와 즐기차게떠붓든비는 이십칠일아침까지계속하야 평균사십미리내지 오십미리의폭우량우가잇섯는데 지금까지온 각지우량을오전십시현재로보면 다음과갓다

◆平壤 三六、二미리◆中和 八〇미리◆安州 三九、三미리◆宣川 八二、六미리◆德川 八一마리

그리고 평남도농무과의 말을들으면 때가원체느진관계로 농작물에한해(旱害)는 어느정도까지 영향이잇슬것이나 아프로 계속하야 우긔를 그릇치지안코 천후만 순조로우면 평균작은어금변 농형은 그리비관할것은 아니다 이번비야말로 농가에는 일적천금의 갈로주로 지금까지 한밥에고갈되어잇든 밧곡식 논농사는 크게호전할것이다 또수리조합봉리구역내의 이앙못한 팔천팔백정보도 이왕총기는 놋첫다하드라도 그중에 오천팔백정보가량은 모밀 야채등속의 대용작물(代用作物)을심어 잘확을 거두게되엇고 남은 삼천정보가량은 하는수업시폐농을 하게되엇다한다。

물쌀멀어 千里길!……(漢江의뒷모래所見)

京義線에水害
築堤決潰各列車徐行

이십칠일 오후네시 부산(釜山)을 떠난 삼십일호렬차가 경의선 금교─한포(金郊─汗浦) 사이를 진행하든중 철도뚝 삼십칠메돌(米)가량이 붕괴되여 위험이잇든까닭에 어느렬차나 천천히 지나다니게되엿고 또 가튼날 밤여덜시 오십분쯤되여서는 평양(平壤)을떠나 사리원(沙里院)으로가든 렬차가 침촌(沈村)역부근을 진행하든중 역시 철도뚝 이십륙메돌이 허무러저서 그곳도 위험하기때문에 어느렬차나 천천히 지나다니는중이다

黃海線一部
列車、自動車不通
田畓浸水、暴雨繼續

【沙里院支局電話】 지난 이십오일부터 퍼붓는 비로인해서 황해선(黃海線)상해─서종(上海─西鍾)사이의 긔차와 자동차등 모든 교통은 불통이되엿다。 따라서 그부근의 전답들은 거지반 침수가 되여 피해가 잇슬 모양이다。 그리고 비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려퍼붓는중이다。

自動車轢兒

이십칠일 오전열한시 삼십오분경에 시내종로일정목 사십칠번지압해서 시내종로삼정목 십이번지 경화(京華)자동차부운전수 정성진(鄭成鎭)(二五)이가 운전하고가던 자동차에 시내종로일정목삼십삼번지 암하치조(岩下治助)의 주하되는 암하승(岩下昇)(五)이라는 소년이 치여서 왼쪽다리가 부러지고 얼골에상처를입고 곳종로삼정목 정구총(鄭求忠)의원에 입원하야 응급치료중인데 전치까지 약이개월동안이 걸릴중상이라고한다

飢兒에의謝罪!
老父가結項自殺
人生苦海가나흔悲劇

【開城】 극도의 생활난이 어린자식들을 굶긴 늙은아비로하야금 죽엄의 닻줄에 몸을매여자살케한 참혹한사실=부내남산정(府內南山町)륙백칠십삼번지 김례수(金禮守)(五一)란 로인은 지난 이십오일밤 물것에 못니겨방에선 잘수업다는 핑계로 혼자부억에서 자는척하며처와자식이잠들기를 기다렷다가 새벽두시경에 부억대들보에다 몸을매고자살한것을 그이튼날 여섯시경에야 안해되는 이가발견하고 즉시목을 클럿스나 그는 이미숨이끈허진지오랫섯다 그가 얼마남지아니한 여생을이가티 참살하게된원인은 요지음 극도로심각해오는 생활고에 어린두자식과 늙은안해를 먹여살릴수업슴으로 생각다못해 인간고해를 죽엄으로곳 매즌것이라한다

無電通信의
海上規定改正

요지음 여러가지선박(船舶)에 무선전신(無線電信)을 설비하는데가 현저히 증가하야 무선통신이 점점번잡해진결과 결핏하면 혼신장애(混信障碍)를 이르켜서 선박의 조난통신과 항해의 위험경계에 필요한 통신이 확실히 통하게되지못하는우려가 잇고 또일반의 무선통신에도지장이 나게하는 일이 각금잇스므로 국제적으로 정해잇는조난통신 즉 오백「키로싸이클」전파(電波)를다른통신에 사용하기를 극력제한하야 해안등에 관한중요통신을 확실히 보전하는동시에 일면으로 해상긔상(海上氣象)의 취집및배부에관한 통신의 적확을 도모코저 종래에무선에 관한 관계규정을 개정중이든바 드디어 오는팔월일일부터 실시하기로되엿다

安在鴻氏等三名
起訴豫審에廻付
俗稱軍官學校事件

중국남경(南京)군관학교에 입학하려가는 청년에게 소개장을 써주엇다는 혐의로 시내종로서에 검거되어 지난십칠일 종로경찰서로부터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어온 안재홍(安在鴻)등 열명(구속오명 불구속오명)은 그간 향천(香川)검사의 취조를밧고잇든바 열명중김세종(金世鍾)등일곱명은 긔소유예처분을밧고 안재홍 등 다음세명은 치안유지법위반혐의로 이십칠일 그법원예심에 회부되엿다

豫審廻付者氏名
京城平洞町七五의三 安在鴻(四七)
京城鳳翼町五 金德元(三一)
京城笠井町五二 鄭泰運(三一)

各地天氣 (今日午前六時)

中江鎭	雨	大邱	曇
新義州	雨	釜山	曇
平壤	雨	下關	晴
仁川	曇	大阪	晴
京城	曇	東京	曇
全州	曇	天津	曇
木浦	曇	青島	雨
群山	晴	上海	曇
雄基	曇	新京	曇
城津	曇	奉天	雨
元山	曇	營口	雨
江陵	曇	大連	雨

運動競技

大會招致有望
兩氏의努力奏效로

【伯林二十六日發同盟】 올림픽大會東京招致委員副島道正伯、嘉納治五郎兩氏의 올림픽委員은 昨二十五日 日本大使館에서 會合한後 連日올림픽組織委員會本部를 訪問하고 東京招致實現에 奔走中인데 이熱誠은 獨逸올림픽組織委員長「레와르드」博士와 米國올림픽委員「가ー랜드」氏로 하야금 日本에 對하야好感을두터이하게하엿다 이結果兩氏는 日本을 支持하고 積極的으로 各國委員에게 日本을支持하도록한事態는 자못好轉을意味하는것이다 그리고 獨逸「나치스」總統히틀러總統을 비롯하야 全獨逸首腦部는 모다 日本을支持하고 招致運動은 漸次各國委員에게反應을주어 次回大會地를 決定할올림픽委員總會를 五日압두고 東京招致는 去益有望하다고 觀測된다

京城醫專決勝에
對廣島高商戰에

【東京電話同盟】 全日本實業專門學校優勝野球大會準決勝戰은 廿六日午後三時半부터戸塚球場에서 廣島高商對京城醫專同志社高商對高松高商의 二試合을行한바 이날京城醫專軍은 結局十三A對十으로 廣島高商軍을 이겨 廿七日에行할決勝戰에서 同志社高商軍과 對戰케되엿다

京城醫專	1	4	6	0	2	0	0	0	A	13A
廣島高商	3	2	2	2	0	0	0	0	1	10

廣島高女排球三勝

朝鮮排球協會主催의 廣島高女招聘排球第一日은 廿六日午後四時부터 龍山鐵道局코ー트에서 行한바 第一高女、京城女高普、鐵道局各隊는 廣島高女에게 敗하엿는데 當日戰績은 다음과갓다

廣島2 (21 21 21 21 / 16 11 8 10) 0 一高女

廣島2 (21 21 21 21 / 16 11 8 10) 0 女高普

【女高】 [illegible]

【廣島】 濱尾本 井保田 前衛 中衛 後衛 [illegible]

廣島2 (23 21 / 21 13) 0 鐵道局

廣島高女에게
龍谷高女惜敗

朝鮮排球協會主催의 全日本女子排球選手權保持者 廣島高女軍은 昨二十六日女高普、第一高女、鐵道局女子部의各팀과對戰하야 三戰三勝한後 繼續하야二十七日午前十一時부터 龍山鐵道局코ー트에서、龍谷高女와對戰한바 龍谷高女는 二對一로惜敗

廣島高女2 (21 19 21 / 11 21 19) 1 龍谷

米女子水泳의花形
除名處分을解除

【伯林二十四日發同盟】 米國女子背泳界의 花形「엘레나ー·홈」夫人의除名問題는 全世界에 크다란 話題를 던지엇는바 其後同夫人은 新聞에 公表하기를 「나는 遠征中의 生活을 全혀 後悔하고 今後다시 遠征에 나가지 안켓다」라고 말하엿는데 一方全選手들도 同夫人의 態度에 同情하야 全員連署로 「이때에 잇서 除名을 取消하라」는 嘆願書를 提出하엿슴으로 委員會를 열고 再次協議한後 同夫人의 改悛의 意向이 顯著한것을 認定하고 其他도 考慮하야 特別히 除名을 取消한다고 聲明하엿슴으로 同夫人은 全米代表團에 加擔하야 無事히 伯林에 到着하엿다

日本하키勝二 【무라ー그二二】

【二十六日發同盟】 日本하키代表軍은 二十五日 체코스로바키아에 遠征하야 首都부라ー그에서 체코選拔軍과 對戰한바 結局三對一로 체코軍敗하엿다

日本 (二―一 / 一―〇) 체코選拔軍

永生對咸高蹴球經過

【咸興】 第十回全咸興高普對全永生高普의 對抗蹴球戰은 二十五日午後四時부터 咸興高普蹴球場에서 開催되엿는바 第一日은 一對零으로 全永生高普가이겻고 第二回戰은 二十六日午後四時부터 行한바 兩軍接戰끄테 一對一無勝負로 終了되엿는데 結局永生高普가 二對一로 勝捷하엿다한다

贓物"故買"는有罪
二重賣渡의 事情을 알고서 故意로남의土地買收한事件
高等法院의新判例

한번 다른 사람에게 파러먹은 땅을 미처 이전등긔가 되지안흔것을 긔회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땅을 파러먹을때는 파는사람은 횡령죄(橫領罪)를 구성하고 그정을 알고 그땅을 산사람은 장물고매죄(贓物故買罪)가 구성된다는 신판례─

전남광주부본정(光州府本町)오정목 리게호(李季鎬)(三二)는 소화팔년팔월구일 광주부 천정(泉町)최영밀(崔永密)이라는 녀자의 집에서 그녀자가 그의아들 미성년자 리만룡(李萬龍)의 친권자인 지위를 리용하야 리만룡의명의로잇는 라주군다도면 방산리(羅州郡茶道面芳山里)오백팔십이번지 밧(田)외 전답륙백열여덜평을 이미다른사람에게 팔지안흔것을 긔회로 도파려먹으려는 사정을알고 그토지를 륙백삼십원에 최영밀에게서 사가지고 리만룡소유권의 광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긔청구소송을 제긔하야 소화구년일월이십삼일에 승소판결을바다 제외한 열여섯필의 이전등긔수속을 마추엇다

이가튼사실이 경찰에 탐지되야 최영밀은 횡령죄로 리게호는장물고매죄로 광주지방법원공판에 회부되야 최영밀은 집행유예판결을밧고 리게호는 징역십월벌금이십원의 실형판결을바덧다

리게호는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엿스나 역시일심판결과가티 징역십월、벌금이십원판결을밧고 또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여왓든바 이십칠일 히두(廣瀨)재판장은 두번파는사정을알고 그땅을산사람은 장물고매죄가 구성되다 피해자가 고매(故買)자에게 장물반환청구권을갓고못가짐은 무를배업다 피해자는 아죽

朝鮮銀行에怪盜
窓口아페서配達夫가방을
外國人風男子가奪取逃走

이십칠일 아츰 열시반쯤 되여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배달부 풍전일천(豊田一天)(三五)이가 조선은행(朝銀)외국위체계(外國爲替係)창구아페서 가방을 들고일을보고잇든차 마침 겨테잇든 사십전후의 외국사람이 돌연그의 가방을 훔처가지고 다라낫다고한다

이급보를 밧은 소관본정서에서는 범인수사중이라는데 그가방에는 현금사십오원 중요서류등이 드러잇다고한다

少年竊盜團의
背後黑幕은飴商
【前科二犯의宋宗錫、犯行을一一히指揮】
鍾路署에서一黨二十名打盡

수일전 부터 시내종로서 사법계 형사대가 시내련지정(蓮池町)신즉장에 웅거하고잇는 리상윤(李相允)(一六)등열두명의 소년절도단을 일망타진하야 취조한결과 의외에도 그들의배후에는 시내 신당정(新堂町)에서 엿방을하고 잇는 송종석(宋宗錫)(三二)이라는전과이범의수괴가 잠재해잇서서 이소년절도들을 일일히 사촉하야절도현장까지 딸아가서 범죄를지휘하던사실이 판명되여 곳 그수괴를 붓들어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이다 취조에따라 그들과 련락을 취하고잇던 연광희(延光熙)(一五)등아홉명의「스리」단도 판명되여 이십륙일 이들도 또한 모조리 붓잡아왓는데 그들이자백한 범죄를보면 전긔절도들은 지난팔일오후한시경 시내봉래정 정목 팔십륙번지 봉촌팔일(蓬村八一)의집에 침입하야 금시계 금반지 등일백칠십사원어치를훔친것을 비롯하야 시내각관사를 전문으로 귀금속들을 도적한것이 약사천원어치를 넘으며「스리」단은 주로전차와「뻐스」안에서약 일천오백원어치를 도적하엿다고한다

平壤府上水口里 水王産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半裸體乞人
鐵道自殺
永登浦附近서

【永登浦】 이십칠일오전구시사분 경성발수원(水原)행 제륙십호렬차가 영등포방향정(永登浦放鄕亭)부근을 막통코나갈때에 이십세가량의 보이는 거지가튼 빨가숭이청년이 돌연뛰여드러 끔직하게도 몸뚱이가 조각조각에 산산이 흐터저서 즉사하엿다 그신원조차 알길이업스나 그원인은보잘것업는신세를 극도로비관한나머지 그가치자살한모양이며 시체는 영등포경찰서원의 검시를마치고 경성부에인도하얏다

叛軍首魁未亡人飮毒

【東京電話同盟】「이·이륙사건」의 수괴고률원안수(栗原安秀)전중위의부인 옥지(玉枝)(二三)는고인을 추모하든남어지 이십오일 오전두시 목흑구구장(目黑區駒場)팔백사번지에서 음독자살을도모하엿는데 가족들의 응급수당으로 생명은건질수 잇스리라고한다

天氣予報

概況 低氣壓은 青島의 南西方面과 滿洲에잇서 함께東進하고잇고 高氣壓은 日本南海上에퍼지며 그尖端은 朝鮮半島의 西部에 突出하고잇다 南滿洲와 西北朝鮮은雨 北滿洲와 朝鮮의 大部分은曇 西日本은晴 其他는曇 北海道는 비가오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비가오고 來日은흐리며 京畿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七度四
同 最低 二三度一
今朝 最低 二三度七
今日 正午 二八度一

地方氣象特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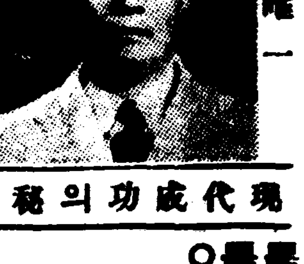
京畿全區는豪雨가오다 河川은增水할모양、

朝報案內

廣告
本人의水晶四角印章을本月二十二日紛失하엿삽기茲以公告하오니 京城竹添町二ノ七六 [illegible] 白

外交 男女數名募集 하시는분은 左記에本人直接來議하시옵 京城漢江通神社下 [illegible]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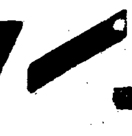
一種五圓十圓 秘法盡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萬國秘法大寶鑑
本書內容目次의一部分
[illegible]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木川町 現代出版社 振替大阪五六〇一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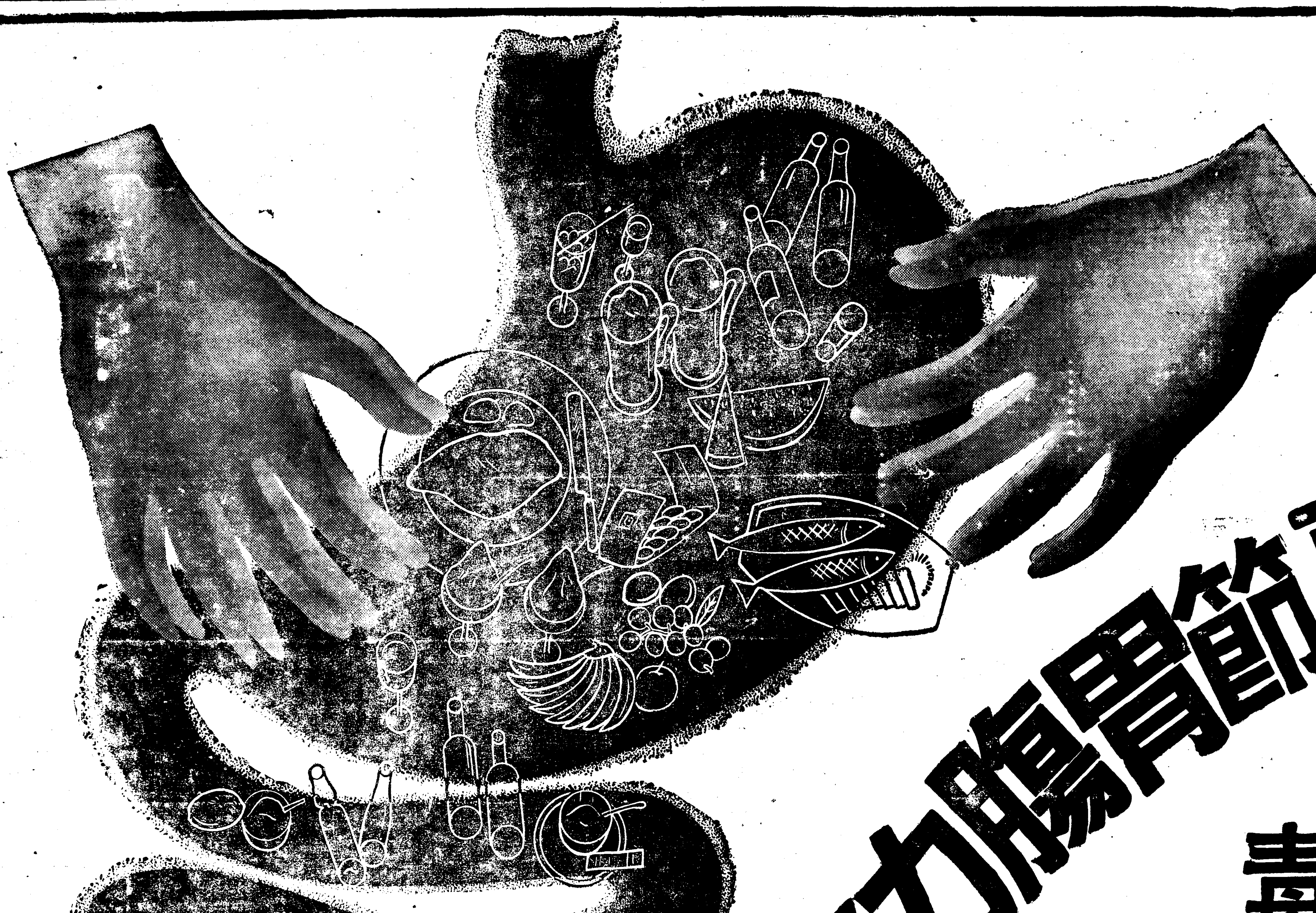
朝鮮唯一 電醫養成

現代成功의秘業
最新最高 電氣物理醫療師
○東京電氣醫學校創始者學長責任指導
本院卒業生은內鮮各地에서成功中
夏期特別大講習生募集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高熱나는病에
肺炎、流感、마라리아、窒扶斯、猩紅熱、扁桃腺炎、産褥熱等 熱病
急性의熱이나는病은거의다病原菌이傳染하야일어나는것이므로感氣藥이나엇저가튼解熱劑만먹어서는낫지안는다그病原菌을죽이지안하서는안된다
이기나뽄은 마라리아菌을 죽이는 키니ー네를가지고 만든것으로 肺炎과 流感又高熱을내는黴菌을 滅케하고 그러고 一方으로는直接으로 熱을내려서人體가 天然으로가지고잇는病을 이기는힘을 强하게하는것이다
故로 이러한 種類의病에는 아모걱정못해도 기나뽄을 注射하기를 이저서는안된다
多數한 醫學大家가 實驗하야 此等疾病에 效果가絶大함을 證明하신바이다 그主되는先生님네는
石田博士、鹿沼博士、緒方博士、師博士、等으로大槪二三回의注射로熱은내려버린다
用法 大人은一回에 一筒(一그람)식 筋肉、皮下、又는 靜脈內에注射한다 每日一回로足함 小兒用이잇슨즉 그것을 使用해야한다 大人用을쓰면안된다
注意 寒冷時에는 藥이結晶하는수가잇다 좀 뜻뜻이 데우면透明해질것이니 데워쓸것이다
種類 大人用 十本入 一圓五十錢 / 五十本入 六圓三十錢 / 小兒用 五本入 八十錢 / 五十本入 五圓
이잇다 有名한藥店에서팔거니와品切될때에는直接本舖로前金으로注文하십시오
기나뽄 キナホン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七月二十六日부터三日間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祝祭日은晝夜二回上映 낫一時밤七時四十分始映
◆파社特作全發聲日本版西部大活劇! 하바ー트부레사돈氏監督作品
西部의爆風
월이암쁘이르氏決死의猛演 지미ー에리손孃助演
◆파社超特作全發聲갱크劇 알푸마ー키氏監督 호렐드마크마ー레氏力演
일홈일흔男子
跳梁하는不敵갱크의殲滅을目的으로!現代아메리카組織한無名의決死隊!妻나子息이나그리고自己의일홈까지抛棄한人間이躍動死線에서活動하는機關이것이G멘의全貌!!悽絕!慘!光明에나선現代아메리카의놀날만한裏面을보시라
◆マキプロダクション特作品 現代悲劇
戀愛結婚制度
監督 根津新氏 主演 岡田靜江孃
麻浦桃花 電話龍山三三三
桃花劇場

廿八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無說明
◆佛「PJ」社로超特作映畫
盛粧의밤
까、빼、리미유라 主演 잔、윈스탄 監督
◆獨逸토비스特作映畫
宿命的戀愛에그靑年이죽엄을선택할때까지、파솔품의兩樣畸를보여준快作 프란츠 이비카칼主演
◆日活超特作映畫
페로니카의꼿다발
꼿다발치어엽분페로니카의사랑의日記입니다、十七才페로니카의가삼이뛰놀게된첫사랑의이야기
大學を出た若旦那
(次週封切)
百萬番의感激、空中을나는音樂
(近日封切)
鳴曲어느女子의一生、片道鐵札、情熱의뽐바
團成社





夏節胃腸カタル대 アイフ다!

(아이후)

毒な物ほど欲しい……

해되는것일수록먹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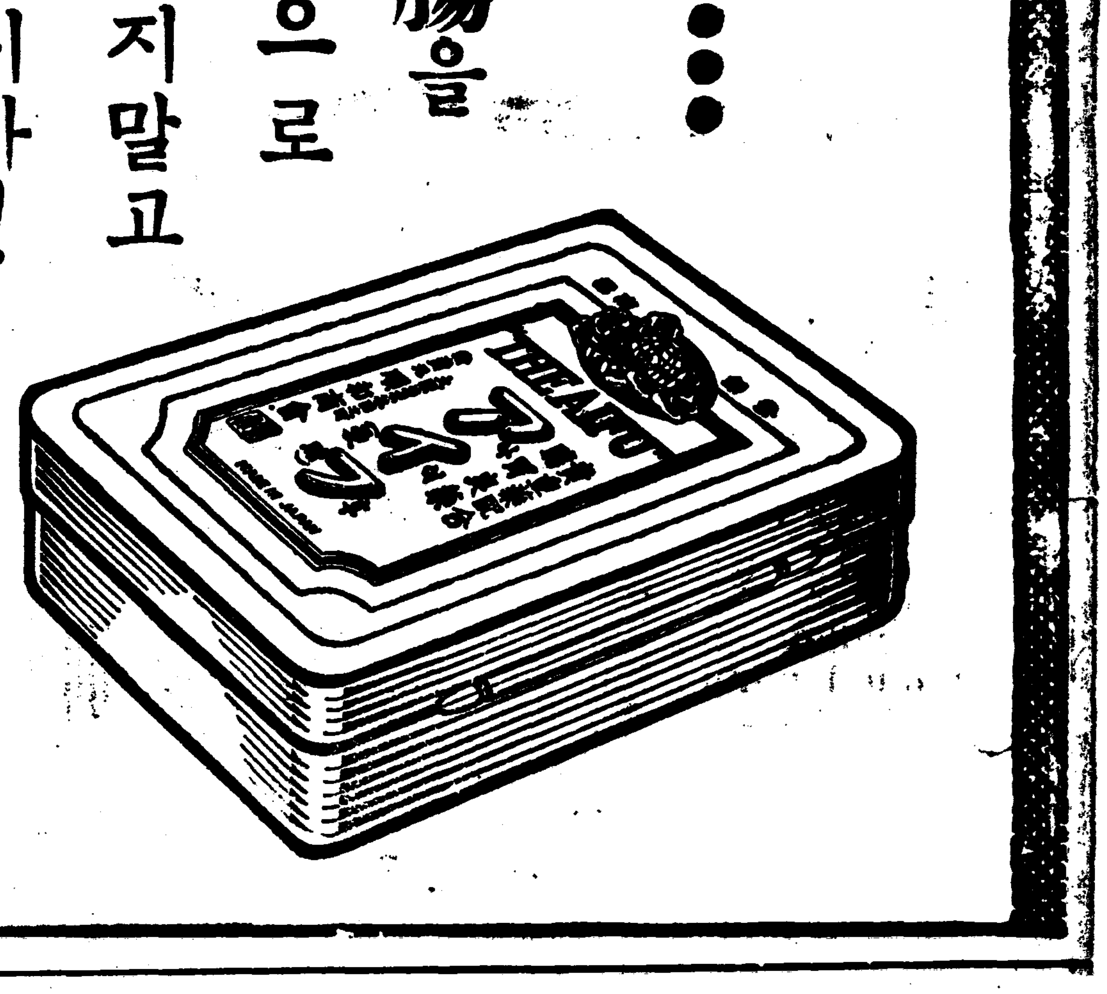
이런것이人情이라면 귀태여弱한胃腸을
어름과 찬 삐ㅣ루 사이다ㅣ等으로
傷하게하든지、泄瀉 腹痛이라떠들지말고
잠자코 治療藥アイフ를服用하시라!

참으로 요저음과가티 더운때에는 누구든지 冷水 아이스크림 삐ㅣ루 사이다ㅣ等等 무어이든지 찬것이당기는것이지만 過度히 冷한것도 胃의關門인 噴門과 出口인幽門의筋肉을刺戟식혀 閉鎖식힘으로써 먹은것이胃中에積滯되기쉽습니다 그뿐아니라 胃粘膜에凍傷을이르키든지 腸의蠕動을亢進식힘으로써 胃加答兒와泄瀉의症狀을이르키는것은 當然한일이며 더욱다해서胃腸의能力도考慮치안코 되는대로過冷한飮食物을攝取하는것은 自身이病苦를 招迎하는것이라고 안할수업는것입니다

大體 여름은胃腸의緊張이弛緩되야 消化吸收機能이極度로衰退하여짐으로써 健康한사람이라도 無理를하면胃腸障害를이르키기쉬운일입니다 더욱히 平素부터너머나胃腸이튼튼치못한분이나 慢性大腸加答兒가잇는분等 食慾不振으로榮養이衰退하야 여름을타게되며 寸時라도不注意를하든지 攝生을게을니게하든지하면 急性의胃腸加答兒를 어르켜 一層더痼疾를 惡化식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름과가른胃腸非常時에는 항상治療藥アイフ를服用하야 慢性的인胃腸病의 治療에努力함과同時에暴飮暴食 不消化物 腐敗된食物 過冷한飮食物 寢冷等、急性胃腸加答兒의 原因이되는不攝生을 謹愼하지안어서는안됨니다。

또한 假令 急性胃腸加答兒에걸니드라도 겻바뻐하지말고治癒할수잇는 アイフ를常備하야 赤痢、腸疾扶斯等의惡疫을 未然에防止하는것이 여름人衛生의常識이되지안어서는안된다 더욱히 治療藥アイフ에는 病原、對症二重의作用이잇스며 主藥이胃腸內壁의瘡面에沈着하야 炎症을醫癒하며 粘膜을튼튼케하며 弛緩을引縮식히며 分泌及蠕動異常을 整齊하는等 敏活한 病原治療를 營爲하며倂하야 胃病、腹痛、泄瀉、嘔吐、食慾不振等 諸症狀을消退식혀 全機能의健全한活動을助成식힘으로써 慢性症은勿論이고 여름急性胃腸病에도 賞用되고잇습니다



藥價

胃と腸の兩病にはアイフ(粉末)

四日分 七十五錢	十七日分 三圓
八日分 一圓五十錢	特製十一日分 五圓

胃病專門には健胃アイフ(錠劑)

七十五錠入 五十錢	百六十錠入 一圓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슴◀

發賣本舖 **順和商會**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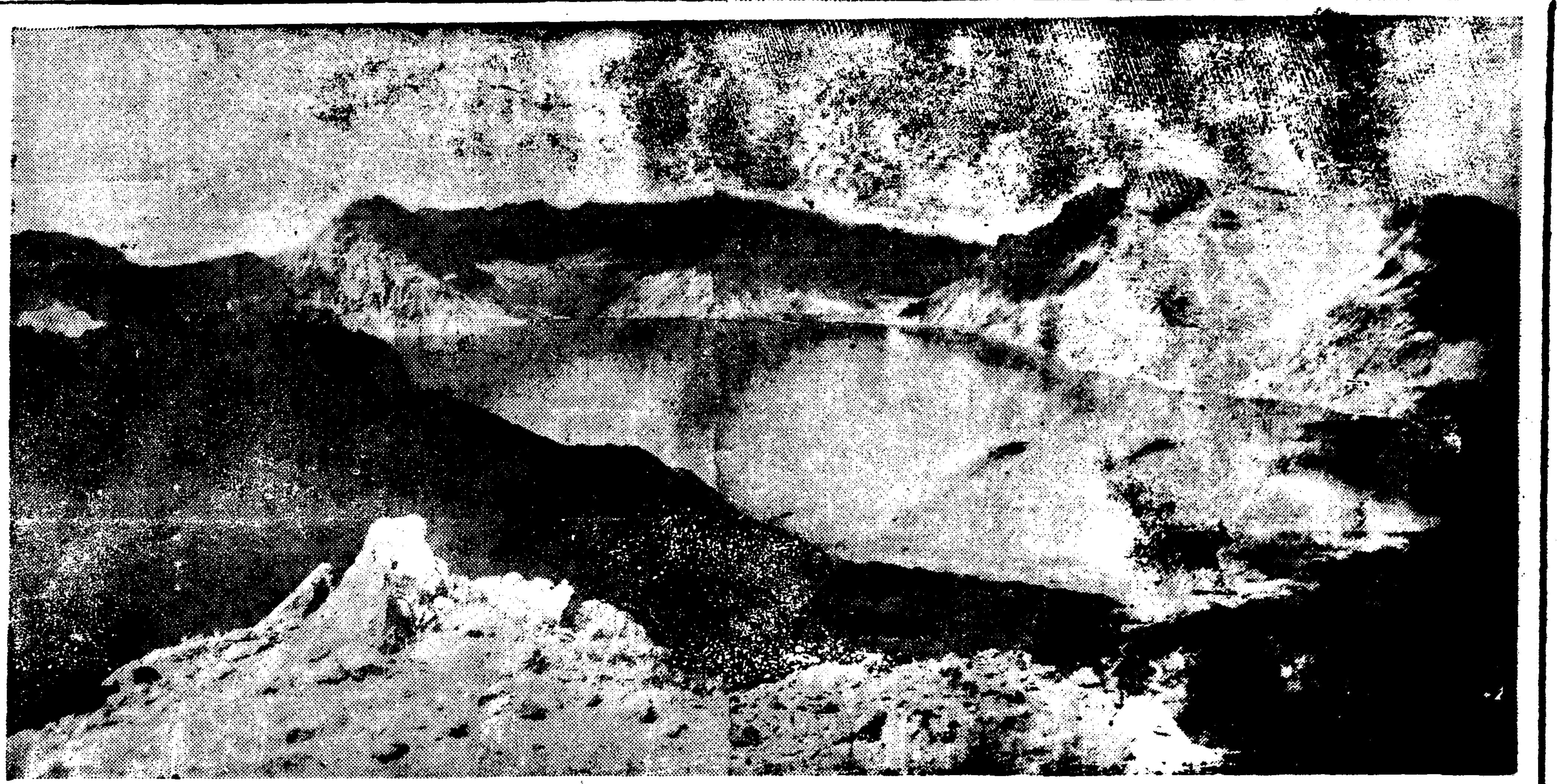
振替大阪三四五番 電話(東)五•○○○五•二○○五•三○○○番

東京 東京市本郷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八八一番 電話(小石川)四○一○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八番

歷史的聖地巡礼

本社主催・白頭山



靈爽明潤한神域에 莊嚴泓茫한大景像

白頭全貌를삿사치뒤지어서 人文과科學兩方으로解剖

백두산은 조선과 만주의 국경에걸처잇저 지리적으로는 조선과만주로 전후사오천리를 벌려펴진 수백수천갈래 천산만악(千山萬岳)의 부체사북이 되여잇는조종산인 동시에인문(人文)방면으로 본다면 조선의 건국설화(建國說話)의 중심지로서 고조선환국(桓國)이 여기터를잡아 환웅천왕(桓雄天王)이 솔도삼천(率徒三千)을 하고나려오신곳도 이터전이요 그의아드님인단군(檀君) 한아버지가 조선이라일홈으로 력사의 첫실머리를 풀곳도 이곳으로서 조선겨레 머리속에서떠나지못할성지(聖地)요 이땅에발붓친자로 첨앙(瞻仰)의 정성을 바치고롤 영경(靈境)이다

그러나아직 우리손으로 때를한붙어 이성지를 차저본적이업도 찾을수업는 무인헌경으로한 엿새동안을 로영을 해가며 돌파할 사정임으로 단원의 고심도 여간 큰바가 아니다 그러나금번 탐험의 목적은 단순히 한사람 개인의 만족을 표준한다든가 단원각각의 엽기(獵奇)를 목적한 행사가 아니요 전단원이 백두의 위대와신비를 해부하야 그장기와 전문대로 경종과 력사와 지리외에 그과학적 면모를 천하에 보고할중대한사명을 띄더이라 저간의고난을무릅쓰고 광휘잇는 정도(征途)에 오르는것이다

一望無涯大樹海 珍花異草大花園

悠悠蕩蕩! 大天地의偉觀! 滿山風物、皆是教材

백두산 등산의로정은 경원선을 잡어라면서부터 자연의 호취와 를 오지여리를돌고 나아가도보 행정에드러와 처음로영(露營)러 (白岩)등의 진귀한 식물등을발견할것이요 여기서 백두의련봉 (神武時水)를지나 무변대해의대수해(大樹海)를눈 알에두고 무두봉(無頭峰)에낫기린다 여기서하로밤을자고나면 내일은백두령산의 안경(眼鏡)이라고할 천지(天池)의신비경을 차질터이라 이날은 경건히 하로밤을 지내고일은아침에는 이옥고 천지를향하야 발길을 내밀게되는것이다 이중간에는 국경의분수령으로 시비도만코 말성도만튼 경계비가 잇스니 이곳에서부터는 나무는업서지고 순전한초생지대(草生地帶)로 화산재와 용암(溶岩)부스러기와 부석(浮石)등으로 지질은 송두리째로변해지며 한다름으로 치오르면 장군봉(將軍峰)에올라서게될것이니 눈아래깔린 천지는 만년신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얼굴로 마저줄것이다 망천후(望天吼)의 웅대한기관검고 붉은 화구벽(火口壁)은 쪽빗가튼 신택(神澤)에 비최여오색령롱한불꽃! 천지아니고는 흉내도못낼 대경관에홀신취한후 다시 화구벽을더듬어밟아 달문(闥門)탐험을 할것이니 이달문은 백두산천지물이 오직한구멍을통하야 떠러지는 송화강(松花江)의 수원이다 천상세게나다름업는 천지가에서 하로밤을 지내고이튿날은 애석하게도 이천지를 하직하고 다시무두봉으로 내려오게되는것이다 무두봉으로부터는 한숨에 오는길로 신무성올거처 삼지연(三池淵)에 를 것이니 삼지연이란 수

徐椿　李相昊　方在胤　李鍾玉　李明雨　崔雲峯

通信・寫眞・映畵 本社特派大陣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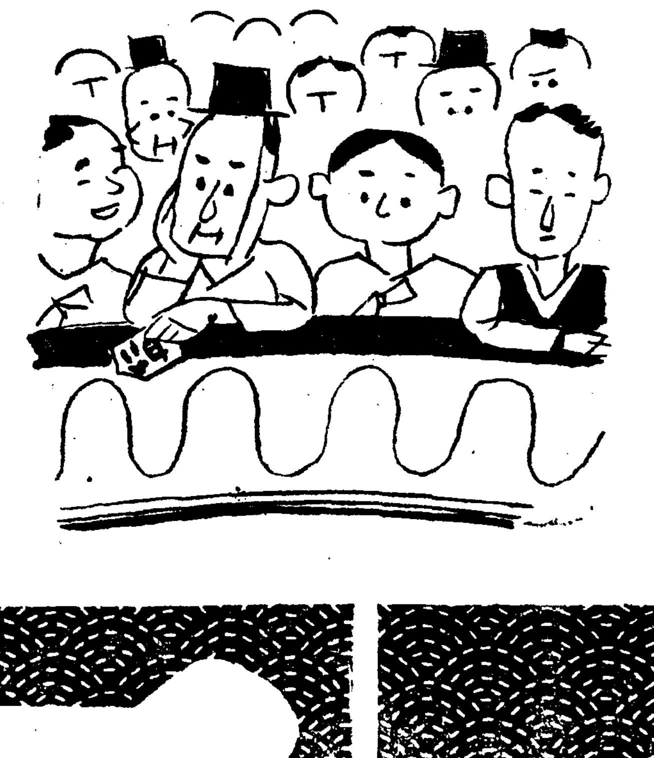
백두산 탐험계획에잇서 본사특파단원 진용은 실로 이종류 계획에서 전에 보지못한 충실한 진용으로 단원은 전부 륙명으로 조직되어 단장으로는 본사 주필(主筆) 서춘(徐椿)씨요 통신담당(通信擔當)으로는 본사 사회부장(社會部長) 리상호(李相昊)씨 서무담당(庶務擔當)으로는 본사 영업국원(營業局員) 방재윤(方在胤)씨 사진부원 담당으로는 본사 사진부원 리종옥(李鍾玉)씨 활동사진반으로서는 영화를 영계원으로 그간 조선영화로서 명작걸작을 거의 그손으로 거처 나오게된 명「카메라맨」리명우(李明雨)씨요 그 조수로는 역시 이방면에 우수한 기술자인 최운봉(崔雲峯)씨로 어야말로 출색들업는 진용이다 그중에도 활동사진 촬영에잇서서는 종래 영화로 발표된 백두산이 한두개가 아니겟지마는 그전부가 불완전한 준비와 촉박한행정으로 백두산의 반면도 집어너허오지못하엿슬뿐아니라 이왕에 발표된 그것은 전부가 부근 군대행군련습을 따라가면서 촬영을햇기때문에 가든코ㅣ쓰를 그대로 뒤잡아내려오게되고보니 부득이 한편 코ㅣ쓰의 풍경만 잡아 너허오지못하엿스나 금번 본사계획코ㅣ쓰는 무산(茂山)을 기점으로 출발하야 천지(天池)외절정까지 돌파한후귀로(歸路)는 혜산진(惠山鎭)코ㅣ쓰로내려오게되어 백두산의 종횡단(縱橫斷)을 한목으로 하게되고보니 그 전폭을 잡아넛는완전한 필림이나올것을 예과하는바로 더구나 일행에 참가한 일반 참가 단원은 그 대부분이 력사 지리 동물 식물등 인문 과학 방면에 권위자들이 동행을하게되고보니 그들의 감독과 지시에 따른 촬영수집은 단순한산악풍경의 설사에 끄치지아니하고 귀중한 과학영화 한편이 만들어질것으로 사명이 또한 중대한것이다

本社特派團員陣容

團長 本社主筆 徐椿
通信擔當 本社社會部長 李相昊
庶務擔當 本社營業局員 方在胤
寫眞班 本社寫眞部員 李鍾玉
活動寫眞班 李明雨
同 助手 崔雲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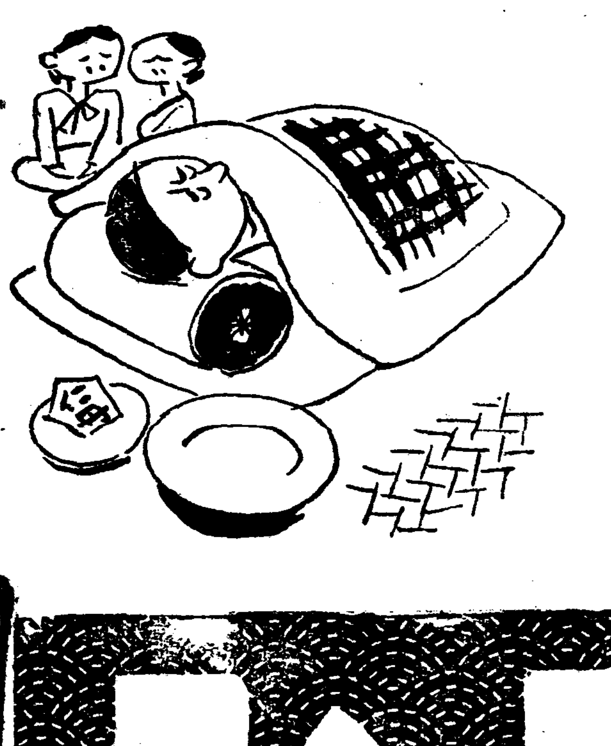
頭痛眩暈
卒倒에는
仁丹十粒
만服用하
면直時로
効驗잇서
心身이爽快하고
또惡疫도豫防됨

觀劇、講演
對話에는반
드시仁丹二
三粒을입에
무시면香薫
이돌고氣分
을爽快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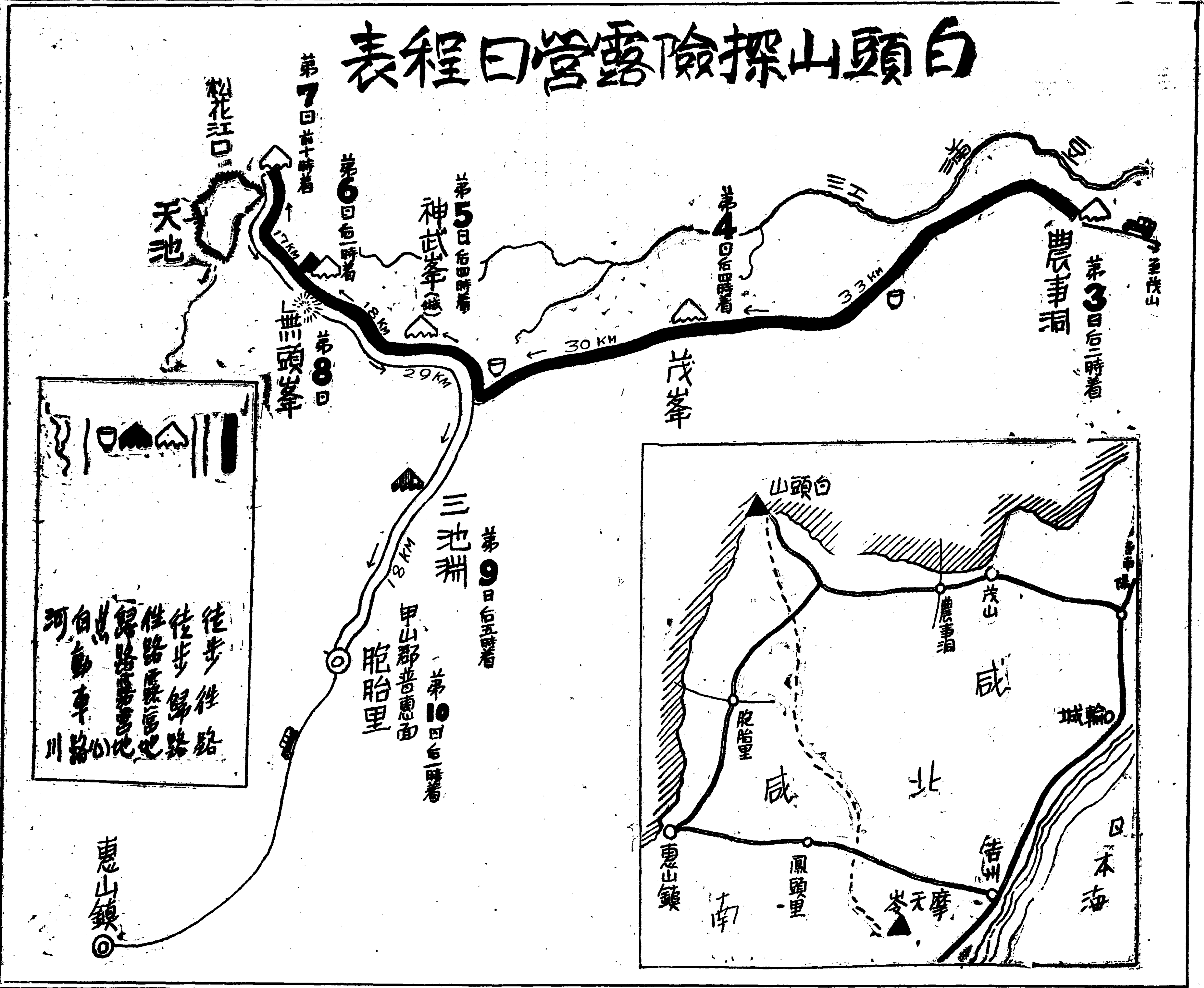
氣分이나빠
食慾不振과
胃腸으로괴
로우실때에
仁丹을十粒乃
至十五粒服用

嘔吐、泄瀉
잇슬때는
直時仁丹
五六十粒
頓服할事



胃弱과 頭痛에 銀粒

白頭山探險露營日程表



探險計畫

고 우리의지로서 이비경의 파악하려는사람 시험해볼일이없것 습은 이땅에사는 자로서 그거울한 죄책과 그책임은 허물이 비할데없이 크다할것이다
　북지로서는 여기놓지비었서우편순으로는 처음이라할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그계획에생은 원래부터 여어려지아니하고 장래를 엮것가히 공전의 이계획의 완전한 성공을위하야 조사에조사를 거듭하고준비에 준비를 거듭하야 출발기일을 앞둔오늘에는 벌서만반의 계획과 준비가 다되어오는지 그날만기다리며 참가단원은 용기(勇氣)를기르고잇슬따름이다 북지에 도보한비와 맛찬가지로 백두산은 원래가 원벽한지방이요 함께국경인까닭에 소란하지대인지라 여기감당하고 방비할 자림도 필요하거니와 행정중에는 오백리원로를 도보로 행로치안으며 안될판에 오백리도보 행정중에는 인가이라고는 한호

데사의 감회가이를때 벼며지는 곳으로서 청원(淸原)을 지나면 태봉고원(泰封高原)의절경미, 호도반도(虎島半島)의미한소광 속시원한 향기 장저(長箸)에서 의로운감회 서호진(西湖津)을 기지나서면 홍원(洪原)의 옥대 와장성 길주(吉州)명천(明川)에 안외의풍광을 여러대로 달려서 북국의 거봉(巨峰)청진(淸津)을 여러두고 고무산(古茂山)에서경편철도에 몸을옮겨 차유령(車踰嶺)노론재를 단숨에넘어 두만강(豆滿江)목의 청정한 마을무산(茂山)을 들거된다
　여기서부터는 자동차길로 두만강목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백두산아래에서는 사람사는 곳으로 최후의 마을인농사동(農事洞)에 닿게된다 여기서부터는 봉화되동산코ㅡ스로서 도보로 행진하거되여 와이십리를 못가서 벌서 색다른고산식물의 꼿밭을맛나거되고 이곳으로부터는 하늘이안보이는 밀림지대(密林地帶)

인 무봉(茂峰)에 닿게될것이니 이지대는 금후에(金華□) 뿐만 (□□)백산다(白山茶)등속들의식물이 만산편야하야 처음으로식물의보고인 백두산의 일면을차즐것이요 여기서 소백산(小白山)연봉이 보이기 시작하야웅상한 고원의맛을 맛보게될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제이일의 로영★ 하게될신무성(神武城)까지의 행정으로 이가튼 고원이아니고는 도저히 차질수업는 기기묘묘한 곤충의 "폐이젼트"를 발견할 곽룡시에 처처에 벌려진고원의 꼿밭은 만화방창한 봉봉산을 이루어잇는 장관이란 백두산이아니고는 보지못할 기관일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로영계 삼야의 터가될 무두봉(無頭峰)을 향하야 치오르는 코ㅡ스로 한편외 (鴨綠江)의 유역이라고하는 벼롤무더이를 거치서 정정고산식물의 이제이라고할만한 석남(石楠) 청류초(靑柳草)순동백지백선

白樺林中에 三池淵壯觀

北歐情緒를그대로

이 [illegible] 어떤것으로 [illegible] 마강의 최고밀림지인 신무치수 다섯가못으로된 [illegible] 천이었는것도 도하[illegible]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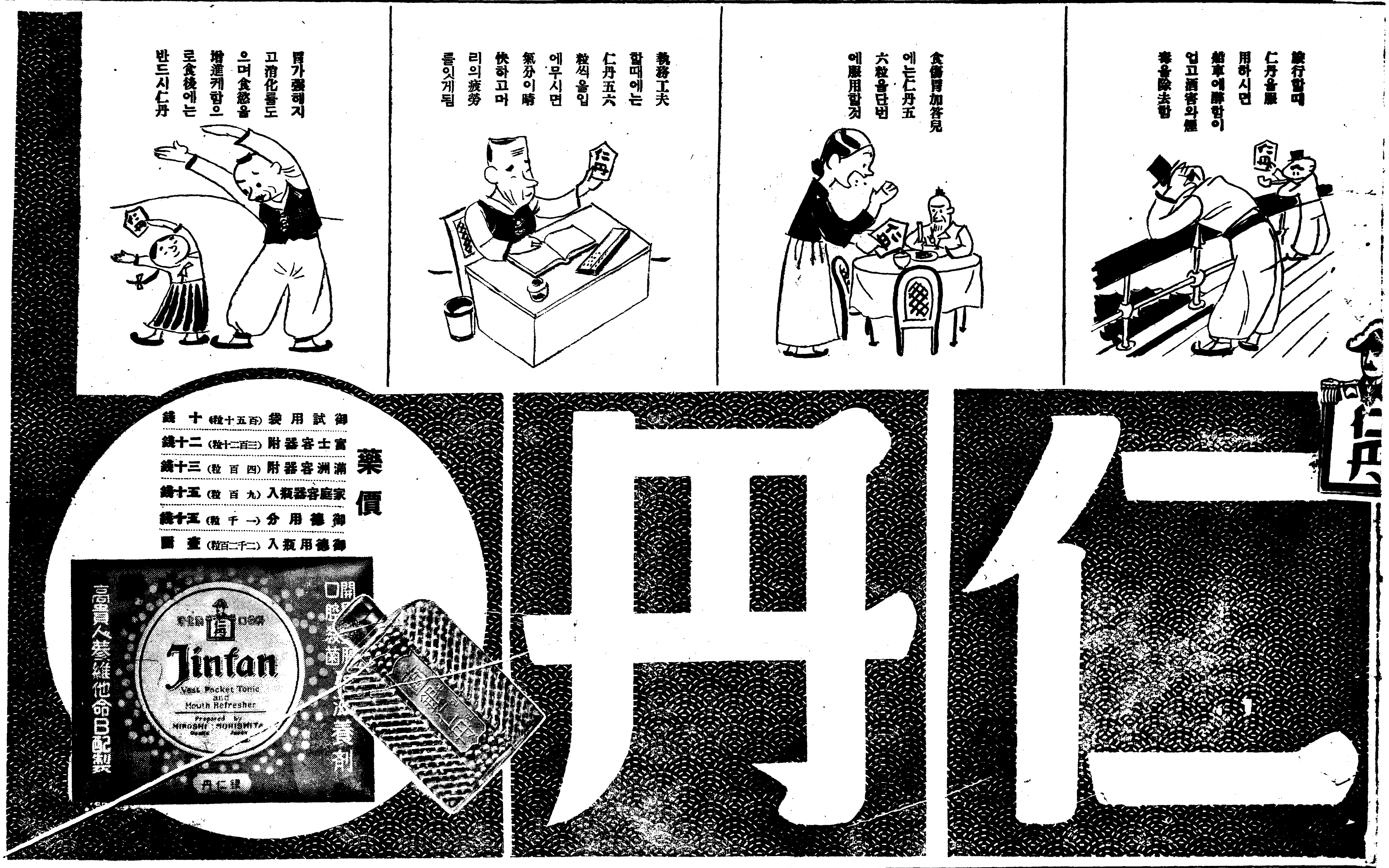
놓루의그것을 연상시키는 백화(白樺)의사림이 울창한속에 처녀의 눈앞거리랍은 작은호수를 온이땅에도 이런풍경이 잇슬가 의심될만치 드릅게 볼풍경으로 인적이끈허진 이숲속 호수가에하로밤을 로영하는것은 호긔로지나칠 흥취가아닐것이다 이삼지연곡에서 백두산중에서는 마즈막 로영인 제륙일의 로영을마치고 이른날은 백두산서쪽으로는 사람이사는 첫동리인포태리(胞胎里)를 향하야 내려올것이니 삼천리를 빼처나갈백두산의 정간(正幹)이 되어잇는허정령(虛項嶺)을 지나 고림(高林)을둔진 천의당을 거처서 또다시밀림이 하늘을 멸흔대삼림지대를 사십여리걸어 내려올것이다 이사이에는 대산화(大山火)로말미앙은 불타산림의 처참한 흔적도 거칠것이요 몃마장식걸처잇는 진풀밧은 백두산탑협도정에 최후의 협로를겪게될러로 삼지연과 포태리사이사십리길은전행정중에도 가장어려운길로서 마즈막시련을 당할것이다
　포태리로부터 자동차로 혜산진(惠山鎭)까지 달리는데인데 연도는 압록강의상류를 끼고내려오는 풍광은 올라가든길에 두만강을끼고 오르든맛과 못지안는경치에 취할것이니 혜산진으로부터는 길혜선(吉惠線)의 마즈막정거장인 봉두리(鳳頭里)까지 자동차로 고원지대를 횡하야봉두리로부터 기차로 길주(吉州)를거처 경성으로 도라올것이다

植物、昆虫

世界的寶庫

백두산이 그웅휘한 풍광으로만 일홈이 노픈것이아니요 구천여척되는 그노픠만이 산으로서어른되는 자격을 어든것이 아니요 사오백리를걸처 가여서벌려저 하늘을 가리우고잇는 밀림(密林)만이 그의전모가 아니요 웅대하고도 장엄한 천지(天池) 그것만이 이산의장기가아니다。이모든것이 백두산의 것치레요 밖앗차림이라고하면 백두산의고갱이알맹이는 따로 남아잇슬것이니 그것은 이산만이 가진귀중한 고산식물과 이산만이가진 귀한 곤충그것들이다。
백두산의 거룩한자태와 웅대한 기개를좋다라고 모혀드는사람들은 백두산의 거룩을 할른려모이드는 사람이라고할것가트면 이산이간직하고잇는 귀중한식물과 이산이 가슴에 품고잇는 진귀한곤충을차저 이산을향하야 모혀드는그들은 참으로 백두산의 알맹이와 고갱이 맛보려드는 착실한 학도 들이 아니고는안될것이다 녜전에잇서서는 혹이여에서온 학자들이 이산에 대하야 칭송을흘리고 식물이나 귀중한세계적발견을하야 학계에큰충동을 준일이 한두번이아니어와이번본사탐험단에 참가한 이방면전문가들은 조선에잇서서도 굴지하는대가들로서 금번거룩에 또다시 세계적발견이 거듭잇슬것을지금부터예긔하야 마지안는바이거니와 이와가튼 과학의보고를우리를 울안에두고도 아즉도한번 우리손으로 이것을차저보지못하고 우리손으로 거두어보지못한 것을 금번에야 우리힘으로 우리손으로 우리가 그리는백두산에서 세계적보물을 캐여내여세계적학계에 자랑한다는것은 생각만해도 억개바람이날일이다。조선에서아즉 시험해 보지못한 이 탐험 과학적순례의 거룩한 거룽은 큰성공과 큰수확을 예기하고잇는바이다

▼…右上 寫眞은
探險團을 마지할
白頭頂天池의偉觀



瀑布를 차저서 (其五) 慶北榮州의 喜方寺

學藝와 家庭

『막심·꼬리키ー』의 藝術에 對하야 (3)

韓雪野

그런데 여기서 特히 留意해야할것은 이作品을 쓰든前後가 그의藝術을 硏究하는데에잇서서 가장 重要한 時期라는것이다. 이時期는 그의 表現手法이 리얼리즘으로 轉換하는同時에 그의

作品의 『이데ー』가 참말 프로레타리아的으로 一大回轉의 試運轉을 시작한時代엿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決코 룸펜프로의 擁護와 無緣한發展은 아니엿다. 그의 初期作品도 恒常 룸펜의 積極面을 肯定的으로하엿스니 거기에 晩年의 成果가 萌芽되엿든것이다.

그는 여기서 그對象인 資本家를 發見하엿고 勞働者의속에서 愉快히 呼吸하고잇는『힘』을 透視하기에 至하엿다.

그具體的인表現은 곳 그의長篇『포마·꼬르데에프』(一八九九年)이니 이것은 實로 特記할만한 劃時期的大作이다.

그는 勿論 이時期에잇서서도 맨 밋바닥의 暗黑面을 그리엇스나 決코 그것을 永遠化하기 위하여서나 또는 永續的의것으로 생각하는意味에서 取材한것은아니다. 자본에對한 공격으로 룸펜을 取해온것가티 光明으로 기위하야서 어둠을 그리엇든것이다. 그는『幼年時代』中에서自己의암흑面取材에 對하야 이러케말하엿다—

『나는 곳 이러한疑問을 헤으킨다 이러한것을 果然 말할必要가 잇슬가 어쩔가? 라고.

그러나 나는 곳 새로운自信을가지고 나自身에對答한다—必要가잇다고. 웨그러냐하면 이것은 산 愚劣한 暴貨(암흑面)이여서 오늘까지 그命脈을 維持하고 잇기때문이다 이것은 記憶으로부터 人間의 精神으로부터 우리들의 괴로운破廉恥한 生活全體로부터 除去하기위하야 그 根源으로부터 徹底히 알지 안으면안될 眞實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污濁을 그러케하는 또한가지의 보다積極的인 原因이잇다. 이런污濁은實로 擴張할만한것으로 우리들을 압박하야 만흔가특한魂을 숨막히게눌르고 잇슴에도 不拘하고—역시 로서아人은 非常히 健全하야 젊은魂을가지고잇다따라서·그러한汚濁을 이미克服하면서잇고 또한 克服해버릴것이다. 우리들의生活은 모든家畜的인生活面이 膨大하다는點에서 驚異的일뿐아니라 한편그面(어듬)을 通하야 밝고 健康한 創造的인것이成長하고 善良한人間性이成長해저서 우리들의生活을 밝은 人間的인生活에까지高揚시킨다는 不滅의希望을 타오르게하는 아니 結局그러한污濁을 이긴다는點에서 驚異的인것이다』

그의이러한思想은 『포마·꼬르데에프』에 具體的으로 顯現되어잇다 即그는 從來 光明의創造者를 專혀 宇宙의建設者를 浮浪人等 룸펜層에서 或은 부르조와中에서 求하려하엿스나 종래엇지못하다가 結局은 룸펜계급中에서 그建設者를 發見하엿스니 그藝術的表現이곳 『포마·꼬르데에프』다.

一面 이時期는 그의作家的視野가 非常히擴大되든時期이다。이時期부터 그의作品에는 非常히 만흔人間型이 登場한다。即그의偉大한『藝術的垂直線』은 複雜多樣한 現實의한복판에 뻐더올랏든것이다. 다시바꾸어말하면 그의藝術은 밋바닥의 階級으로부터 소사나서 낫과밤 해와그늘 善과惡 弱과强, 勞働者와 資本家가混然히 交動하는 現實社會의大海에 올라선든것이다.

一九〇〇年에 發表한 長篇『三人』은 都市小市民의 下層社會를 取材하고잇스나이것은初期의 作品가티 方向을 잡지못한 無智의猪突이나 아나키스틱한 반항이아니라 그悲慘한 生活의 再建을 爲하야서의 처참한 努力을나타내고잇스니 이것은 初期作品에對한 한가지의 解決이라고도할수잇는것이며 한가지解答이라고도할수잇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그마땅히 할바길을 明示하고잇다. 그길은 決코 商業과 利潤의길인『이리야』의 길도아니요또 못協과 信仰을說敎하는『야곱』의 길도아니요 實로 푸롤레타리아 『파우엘』(모다그의作品中의人物名)의길이니 그길은 곳 生活條件의 完成의길이요 生存의歡喜의 길이다.

그러나 이길은 끔찍하고 荊棘의 길이니 그들을려 樂天家라고하는사람과 그의藝術을 아름바澇薄한 明朗性으로서 부르는사람은 結局 수박것할기에 지나지 안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初期作品에의 還元이라고 볼르는것도 亦是 同樣의 解釋이니, 너른天地에나선 그의藝術이 把握한 새로운 形象과 人間型을 여기서 찾지못하는 印象論의에 피고넨에 不過한것이다.

다음으로나온 戯曲「거리의사람들」이나「밤의世界」(一九〇一)等도 그의 人間的道의喜劇과悲劇의大衆을 말하는作品들이다.

戯曲「小市民」(一九〇〇年)은 어떠意味에서『三人』의 延長이라고볼수잇스니 그는 여기서 小市民的俗物의 灰色的인平凡한生活과創造的이오 活動인 룸펜자를 對置하야 作中의機關手에게 다음과가티말을 시키고잇다—

『만흔 正直한人間들을 돼지며 천치며 도적들이 지배 하고잇다……그러나—人生은 全部가 그들의뜻대로되는것은 아니다! 變化하지안는 行動表示는것은업다!……』

即三人보다도 좀더 얏질을 밝히어 그力線을것는 보다 堅實한 人間型을 取扱하엿다

李朝陶磁器小考

그由來、品質、出土等에關하야 ②

朴秉來

影磁即 靑華磁器라하는것은 吳須라하는 繪料를 下地에 彩畵하고 그우에 白色釉藥을 加하야 燒成한것이다 이것은普通染付라고도하며 或은 靑華白磁器라고도하는 磁器라고도하다 靑華磁器는 李朝初期에 珍貴하게生覺하얏다는것을 左記事로보더라도알것이다

世宗十一年己酉。秋七月己未。李彬騰進靑花磁器及螺盃。賜米豆並三十石(世宗實錄卷四十五)

그러나 高麗末期로부터 李朝初期에보는 靑華磁器는 大槪土中品이며 俗稱『古染』이라하나니 이것은그手法이 中國으로부터 輸入된것이다 그러나 李朝初五六十年前後한 世宗大王時代에 그原料인回回靑을 中國으로부터 輸入하야 朝鮮에서 燒成하얏다는記事가잇다

『求回回靑於中國。靑畵沙器』(…)

또한 當時世祖大王六年에 燔造한 靑華磁器의 條件으로 左와가튼 命令이잇다

『禁制』『大小員人用紅灰白色衣·白笠·紅紬者。酒器外金銀靑畵白磁器者。庶人男女則並禁紅紫衣紫帶·金銀靑畵白磁器。』

이것으로보면 士族이나 庶人이나 酒器以外에는 金銀器及靑畵磁器의 使用을 禁하얏스며 庶人은 酒器로서도 使用을禁한것으로보면 宮中에서 얼마나 貴重하게生覺한것을 알수잇스며또는一般的으로도 貴하게 取扱된것을엿지할수잇다 그後世祖九年부터 睿宗元年(即六年也)은 回回靑磁器를 獎勵하야 靑華磁器의 隆盛이 極致하얏스나 西紀十八世紀初 即英祖大王即位時부터 大打擊을바며 英祖三十年以後에는 畵龍樽이란 酒器以外에는靑華의磁器製造를 禁하얏다(英祖實錄)

李朝陶磁에는 白磁及 漆付以作에 辰砂 及鐵砂 花紋이有하니 그窯址는 傳說에依하면 江華 廣州 永興等의 命名이 잇는것만큼 該地에서 露出된것이多生覺되며 鐵砂를 여러곳에서된것으로生覺된다 辰砂의手法은 高麗象嵌時代로부터 使用되얏스나 李朝磁器의 辰砂着畵는 系統的으로는 明及淸의 紬裏紅의 影響을받은 別途의 發達로 生覺한다 純全히 白磁에 辰砂 鐵砂로 花紋한것은 李朝中 後期에 되는것일것이다 或은 辰砂와 漆付를同作한것 或은 辰砂 하야 그린것 或은 辰砂 鐵砂及 漆付를 同時에 使用하야花紋을 그린것도 잇다 그러나 李朝時代의 辰砂及 鐵砂等의 事蹟은 文獻的으로 記事가업스니 遺憾千萬이다 또한 作器도 稀少하야 珍重取扱하게되얏다 但永興辰砂는그리 오래되것갓지 안코 大略百五十年內外에 不過해도現今朝鮮古磁로서의 李朝時代(三島手暑除外하고)陶磁의 製作되든的의 物品을보면 匣、筆筒、筆架、枕、燈枕、水滴、瓶、香合等屬이업 章、墓誌、器皿、甁、食器、硯印스나 就中筆筒及水滴等에이르러서는 其貌樣花紋이 多種多樣합에 驚異하게되엿다 이런點으로보면 如何히 當代 文人的生活에 얼마나 光彩가 잇섯고享樂的이엿던가를 짐작할수잇다 花紋으로는 四君子、詩入 花鳥蜂蝶、動物、人物等을그리고 또白磁라도 陽刻、陰刻、透刻으로 或은 以上을 混合하야 製作되것도잇서 陶器의 出生한 目的에利用된보담도 優秀한 鑑賞品으로 趣味가多分히 含有하야잇다

漢詩

『薔薇』—押香

桐岡考選

一等

京城府館洞町四ノ二三三

美坡 崔承學

一架薔薇壓衆香
風流似汝亦堪揚
雨中濃濯文君錦
月下故鉤妃子裳
紅鬢不願爲尤物
綠刺秪應護蜜房
吾廬喜有藏春塢
炎夏成陰獨擅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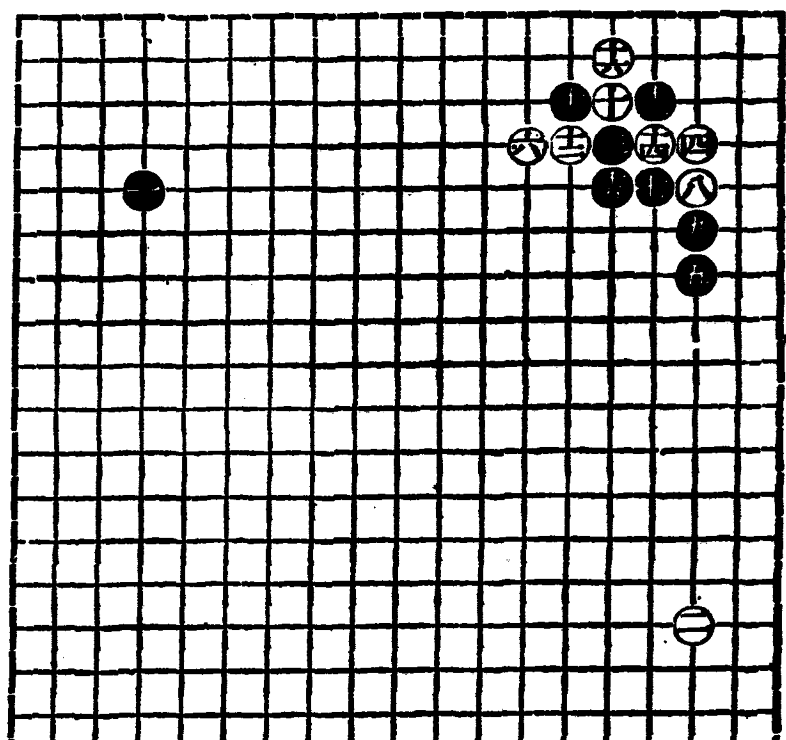
評曰 此詩深有寄托男兒有才不遇而游戲人間手

圍碁對局譜

本社主催

—1— 白 權錫秉 黑 丁壽奉

一	●	巳의五
二	○	丙의十五
三	●	戊의四
四	○	丙의四
五	●	丙의七
六	○	庚의四
七	●	丁의五
八	○	丙의五
九	●	丙의六
十	○	戊의三
十一	●	己의三
十二	○	己의四
十三	●	丁의三
十四	○	丁의四
十五	●	戊의五
十六	○	戊의二



蔡極文氏評曰 此回는 互先再次局으로 比較立場이라 常規定石에 特異한 方法을 一層더 講究할이라 黑巳의五는 目外奇法으로 中央을 重이요 白丙의十五는 高目例則으로 左右를 包含함인바 黑戊의四를 白이 丙의四로 應함은 時機尙早나 原則이아님은아니다

☆曆☆

七月廿八日 (火) 陰乙未六月小(初十日) 辛亥·金·尾·定

祭祀冠帶時刻은午時坐向은西南 移徙上梁午時에宜함

●大暑二十三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라디오

二十七日(月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 高在天
◇同七時 經濟解說 習專敎授 尹行重
◇同八時 趣味講演 名山大刹巡禮(一) 金日坤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處士歌 二、時調 金翼紅 細笛 高載德
◇同九時 獨唱 一、歌劇『마르타』中에서……플로ー作曲 二、主아떼獨唱을음니다…콘듸니作曲 三、라·팔로마……이라듸에르作曲 四、아그대여떠낫고나……글룩크作曲 五、安息의님……슈ー버ー트作曲 安輔承 피아노伴奏 金信福
◇同九時三〇分 긴念佛 一、긴念佛 二、자진念佛 三、孔明歌 四、자진배따라기 五、寧邊歌 李眞鳳 金玉葉

第一放送

◇午後六時(仙)어야거 佐藤隼夫
◇同六時二五分 (仙) 뜸북이집을차저서 仙臺郊外에서中繼 關屋五十二
◇同七時三〇分 社會事業座談會 日野春吉外
◇同八時三〇分 二曲 宮谷仙幽外
◇同八時五〇分 (東) 浪花節 天中軒滿月

二十八日(火曜)

◇午後零時五分 (名)管絃樂 名古屋交響樂團
◇同一時 野球試合實況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第二次豫選 指揮 早川 彌左 衛門
◇同六時三〇分 하ー모니카三重奏와五重奏 一、五重奏『祝典行進曲』……川口章吾編曲 二、三重奏『西班牙月夜曲』……비제ー作曲 三、五重奏『夢』…… 李東坡作曲 四、三重奏『다뉴브江의잔물결』……이바노비치作曲 五、五重奏 米國巡邏兵……미ー잡作曲
알파、하ー모니카밴드 우디나리하ー모니카 擇五誥 목라ー브하ー모니카 金無聲 파리롬하ー모니카 任語淳 크라리넷하ー모니카 金虎活 떠블빠스하ー모니카 朴相陽 指揮 崔一出
◇同七時 經典解說 佛敎時報社
◇同八時 趣味講演 名山大刹巡禮(二) 金敬注
◇同八時三〇分新民謠 一、淸風明月 二、靑春의碑文 三、눈물의배따라기 四、어허야나르라오 五、첫사랑 金日坤
◇同八時五〇分詠詩 一、將進酒 二、採蓮曲 細笛 高載德 張一琢 尹應周
◇同九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春香傳中獄中相逢〃 李東伯 鼓手 池龍九
◇同九時三十五分 流行歌 一、한숨 二、二八靑春 三、靑空九萬里 四、아래마을타령 五、나그네사랑 李圭南 伴奏 DK管絃團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速成獨語講座 登張信一郎
◇同一〇時三〇分 (東) 家庭講座 高橋照文
◇午後零時五分 (名) 管絃樂 名古屋交響樂團
◇同一時 常識講座 村山道雄
◇同六時 (東) 童話 關屋五十二
◇同六時二五分 靑年時間 池田林儀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天治俊一
◇同八時 流行歌 本券一郞外
◇同八時三〇分(釜) 琵琶 高取晉淨芝美代外
◇同八時五〇分 (東) 라듸오드라마 河合武雄外

動物愛話 ⑪

색기를위하야죽은 어미새의사랑

崔秉和

로서아(露西亞)의 유명한 문호(文豪) 쭈르케네프의 글은 산양하기를 무엇보다도 제일즐거워하얏습니다. 그리하야 틈만잇스면 산양총을 메고 산양개를 다리고 산으로 들로 숲속으로 산양을다니며 여러가지 즘생들을 만히 잡어왓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산양해온것을 여러사람에게 자랑하고 그고기를 여러가지 음식으로 만드러서 맛잇게 먹엇습니다.

이분은 그날도 죽어니 꼿마치지마자 산양총을가지고 산양개를 압세우고 집에서 그러케 머지안흔곳으로 산양을 갓습니다.

이분이 회파람을불며 숲속으로 드러갓슬때에는 맑게 개엿든 하날이 갑작이 컴컴하게 흐려지며 사나운바람이 쇠ー부러와서 나무란나무는 모조리 이리쓸리고 저리쓸리고 하야서 무서운생각이나게까지 되엿습니다.

『암만해도 소낙비가 오겟다』 이랑반은 자기아들에게 나 말하는것가티 개머리를 쓰다드므면서 이러케 말하엿습니다. 그리고 이왕내친거름이라 즘생한마리라도잡어가지고 도라가리라생각하고 점점어둑컴컴한 숲속으로 기피드러갓습니다.

날은 점점더어두워저서 맛치초저녁가티되엿고 바람은더욱더욱 세차게부러와서 나무가지꺽기는소리가 딱!딱! 소름이 쭉!쭉! 끼치리만치 처참하게 들려왓습니다. 산양개도 무서운 생각이나는지 꽁지를사타구니에다끼고 주인에게 매달녀지안햇습니다.

그때 사납고 세찬바람이 나무가 모조리떠나갈만치 한동안 부러왓습니다. 그러자 개가 무엇을보앗는지 한 어둡더나서쏜살가티 압프로 뛰여갓습니다.

『저놈이 웨 저럴가?』 하고주인도 눈을 둥그러케 고 쫏차갓습니다.

혈도아주안난 새색기한마리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에 고만놀루지(巢)에서 떠러저서 짱바닥에 발발 떨고잇섯습니다.

산양개는 새색기 떠러진것을보고 뛰여간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새색기를 덥석무를라고 입을버리고 덤벼들엇습니다. 바로이때 어느곳에서 날려왓는지 어미새한마리가 입을버리고 덤벼드는 개에게로날너와서 발로 얼골을 찻습니다.

무심코 덤벼들든 산양개는 깜작놀나서 주춤하고뒤로 물너섯습니다. 어미새는 그래도 끄치지안코 두날개와 온몸의털을불끈이르키면서 개얼골로 덤벼드러서발로 차고 몸으로 따리엿습니다.

사나웁기 덤대와갓다는 산양개도 엇지할바를 모르고 작고만 뒤로물너섯습니다.

이러자 그 기를 약삼분동안ー 어미새는 엇전까닭인지 땅에가 톡ー떠러저서 고만죽고말엇습니다.

처음부터 끗까지 자세히보고잇든 유르케네프의 눈에서는 눈물이 떠러젓습니다. 자기새끼를위하야 용감하게 떨처드른 어미새ー일몸의 힘과정성을 오로지 한곳에뭉처서 개와싸흔 어미새의 사랑 나종에는 너무나 지나친 열렴과 싸흠으로해서 죽어너머진 어미새의 거룩한모양ー

이러한정경을볼때 신경이날카로웁고 감정이빠른 시인詩人유르케네프가 엇지울지안코 그냥잇겟슴니가?

이런일이잇슨뒤부터는 유르케네프는 그러케 즐겨하든 산양을 일체 끈어버리엿습니다。(第九話終)

連載野談 布袋記 (七四)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복을찟는그칼 (十八)

호동왕자가 한숨 눈물 먹을 세가지를 뭉텅떠하야 쓴 그편지는 몇자마다 바로 건너거진 획。바로내려거진획。바로 적힌 정하나이 업시 마치 술취한사람의 거름 자최와 가티 삐뚤삐뚤、고루지못하얏다.

그러나 그쓰러는 뜻만은 하나도 빠진것이 업섯다。

호동왕자는 다쓴편지를 손에 집어 들고 흐리멍한 그 글시가 불가(佛家)의 부작글시와 가티 쓰여진것도 눈동고를 흐리게하는 눈물로 해서 알아보지 못하는듯 하얏다。

그리고 그편지를 잘보고 못본 그분간도업스나 오직 그 부과 라랑에대한 구절만은 똑똑히본 그편지는다시 다른 조히를 끼저 착착접어가며 단단히 쌈치에 공주에대한 사랑을 열(熱)하는것가튼아린 눈집이 간절하얏다。

그래서 한고비、두고비 싸는 것이 고비、고비 접혀 들어갈 적 마다 뜨거운 눈물도 방울 방울 떠러젓다。

『에이참。못할짓。사람으로서。 사랑중에도 남자로서。남자중에서도 사랑하는 안해 갈별。 아니、그안해의 사랑을 때는 편지를 쓰고 봉하는것은 참 아 못할짓。』

하며 호동왕자는 것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듯。평안스럽게 자고잇는 공주가 깨일까 두려워하야 터저나오는 우름을 소리처 울지는 못하고 억지로 참노라니 두억개가 울죽울죽。두 코구멍이 벌름벌름。두입설이 발발 떨리며 두눈알은 뜨거웁고 방바닥은 흔근히 저젓다。

이때 공주는 피연 기픈 꿈속에 잠기엿다。

만일 공주가 호동왕자의 소리를 못내고 다만 숨이 떡켜 가며 우는 전후사정을 짐작하얏슬진댄 옹당 일어나서 고이한 광경이 일어낫슬것이오 그러치안코일어날수업는 모진 잠귀신에게 옴낫딸삭못하게 잡혓다면 반드시 꿈이라도 아한 꿈을꾸엇슬것이다。

그러나 공주가 아모런 생각이 업시 곱게누은 채로 가벼웁게 숨을쉬며 자는중 각금각금 빙그레 웃는양을 보이는것은 그것이 분명 꿈을 꾸는것。그꿈은 호동왕자와 작별하는가한 꿈을 꾸는것이 아니오 호동왕자와 지극한 금슬을 속삭거리는 깃거운 꿈일것。

호동왕자는 한편으로는 우숨을 피우면서도 공주의 얼골을 바라보고 또한편으로는 단단히 봉해노흔 편지를 볼때에 또다시 죽엄으로써 이당시 어려운일을 버서버리고 십흔 생각이 낫다。

『어찌할고? 저공주를 죽엄으로써 영영 리별을할가 이편지로서 잠시 생리별을할가?』

하며 호동왕자는 공주와 죽어 리별과 살어리별중에 어느리별을 택할가를 생각하엿다。

『옹。공주와 사랑을 주고 바들그간은 지금은 끈허질지라도 압으로는 천지와가티무궁하게 만히 남은것。충효를위한 그간은 지으금이 분명한 그 경 그럼으로 먼저할것이 그은 충효。공주에대한 내의 결심은 따로잇스니까。』

하며 호동왕자는 그 창자가끗허지는 편지를 공주압헤 노코 몸을 일어 문밧갓트로 나섯다。

그리고 곳 궁성을 뛰어 넘어 큰 거리로 나와섯다。

락랑국의 도성은 캄캄한 꿈나라에 잠기엇다。

때는 정히 하오월그믐밤。하늘의 껌버거리는 별들은 임을 두고 가는자의 눈껍질인듯 풀사이의 요란스러운 베쟁이소리는 임을 두고 가는자의 우룸인듯 그 무엇이나 모두 호동왕자의 쓰라린 심정을 그리는듯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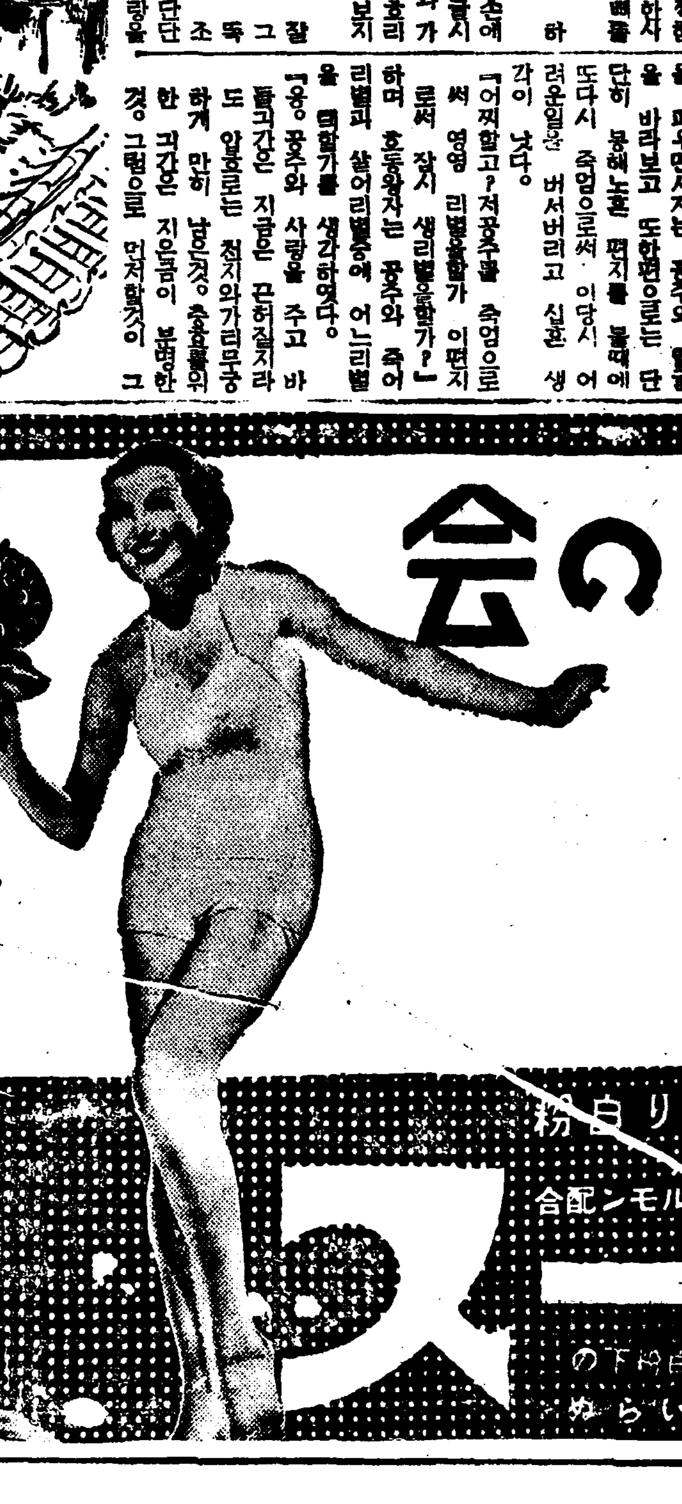
호동왕자는 어차피 저즈려노흔 거름이라 올며、불며。업드러지며 잡바지며。그래도 빠른 거롬으로 다라나기를 애쓰니이것은 혹시 락랑왕의 엄명을바든 군사가뒤를 쪼출가 염려한 까닭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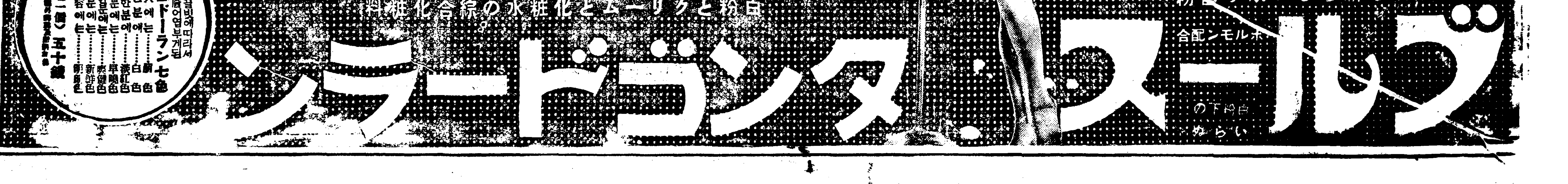
이때 공주는 꿈이랄가 꿈아니랄가 분간할수업는 충동으로 소스러처 깨엇다。

『옹 부마께서?』

그러나 호동왕자는 보이지아니하고 뜻아닌 편지한장이 압헤 노힌것이 보혓다。

『옹。편지! 이것이 웬편지!』 하는 공주의 두눈은 휘둥그레지고 그편지를 집는 손은 발발 떨렷다。





陸地棉栽培奬勵 三十週年記念式
來月廿七日木浦에서

【木浦】 조선에 륙지면이 재배장려(陸地棉栽培奬勵)된지 이미 삼십주년이되아 실로그 보급된 업적(業績)은 조선전도에 잇서서 놀라운 실적을 거두어 그 생산고는 일억칠천만근에 달한바 그중에 전라남도의생산고는 약사할에해당하야 일반농가의경제향상으로보아 가장중요한농산이되여오는데 전라남도농회 조선면화동업회 목포부 목포상공회의소등 사개단체의주최로 래월이십칠일에 면화발상지(棉花發祥地)인 목포에서 재배장려 삼십주년기념식을 성대히거행하기로하고 과거사업의회를 조직하야 지난 이십사일오전구시부터 목포부회당에 관민유지수십명이모혀 좌회의원회를 개최하고 백여명의 대회위원회를 조직한후 다음과 가튼제반사업을 협의결정하엿다한다

一、記念式
來八月廿七日 午前八時半부터 木浦小學校講堂에서擧行

一、全鮮棉作業大會
來八月二十七日 午後二時부터 全鮮棉作業者及 日本棉花協會員 來賓全部를 網羅하야 棉業의 發達을 促進할 目的으로 盛大히擧行

一、棉作發祥記念碑建立
木浦對岸 高下島 ……附近의 務安郡農會所有地에建立

一、棉業功勞者表彰
功勞者諸氏에게 感謝狀及 記念品贈呈

一、記念講演會
來八月二十八、九、卅 三日間 木浦小學校講堂에서開催

一、其他
棉製品陳列會開催

南大川整理工費 住民負擔의過重
每町步當五十六圓의多額
關係住民怨聲藉藉

【新昌】 수리리용을목적한 함경남도당국의계획인 함남북청군남대천(咸南北靑郡南大川)정리공사(整理工事)는 벌써부터 긔공은 재로 한창공사중인데 세인의관심을 끌고 오든바 총공사비는 구변도에야 본격적실행안을 작성하야 총공비백칠십사만원이란 거대한 예산으로 대천내긔공하기로되여 금번도에는 공사완성을 보기로결정되아왓든바 그중민간부담사십구만원은 몽리구역신창(新昌)북청(北靑邑)、신북청(新北靑)、속후(俗厚)、호창(厚昌)、각면에 배당하기로되여 지난 십칠일에 몽리구역면장회의를 열고 동읍을 사정하야 꼿꼬공하기로 결의되엿든데 총몽리지역 칠천정보에 매정보당 실로오십륙원가량으로 각면지원들은 동면사정에 크게로려중이라고하나 일반주민은 부담의 과중으로 반개당국자태도에 원성이 자자하다하며 그장래가 매우 주목된다고한다

安邊地方에는 姑息解渴可能

【安邊】 함남안변지방은 장긔의 한발로인하야 농가의근심을 사고잇섯든중 지난구일에는 설상가상격으로 수리조합의단수까지 보게되여 면종은하리라고예상들 일반농가의 적은희망의 탑이나마 문허저서 그들의생활은 풍전등화와가티 위긔에직면하야 날로 불안을느껴 오든 근심과탄식으로하늘만 우르러비오기를 대망하고잇섯든바 지성감천이되엿슴인지 띄여 이십이일 오후구시부터소낙비가 떠붓기시작하야 지금것세우(細雨)나마 계속적으로 오는데 이 실오일오후한시까지의 강우량이약 서심미리에 불과하야 일반농작물이 것치엇서 성장하여감에는아즉 부족한감이업지안호나위선이것만으로라도교식적해갈은될듯하다 한다

懸賞童話大會

【舍人】 제이세국민의 지능계발을 목적하야 평남 사인기독청년면려청년회지유부(舍人基督靑年勉勵靑年會)에서는 본사사인 지국후원으로 순천지방연합(順川地方聯合)제이회 소년소녀현상 동화대회(第二回少年少女童話大會)를 오는 팔월십칠일 오전칠시반부터 당지교회당에서 거최키로되엿다는바 때는 바로 하기휴가인지라 만흔참가로 성황을예기하는중인데 자기규정을 작하여 기일전으로 속히신청하기를 바란다고한다

◇規定◇

一、申込期日 八月十五日까지
一、申込所 舍人基督靑年勉勵靑年部
一、申込資格 ◇順川地方主日學校內의 少年少女中 ◇十六歲以下
一、申込金 二十錢
一、時間 十二分以內
一、賞品 一等으로三等까지
一、審査 ◇李……氏 ◇林永……氏◇ 李東……氏

大田刑事隊活動
講師等四名檢擧
原因은阿片密輸嫌疑

【大田】 지난이십삼일 대전경찰서사법계 정사복경관대가 돌연 활동을 개시하야 시내본정일정목중화료리점 대화루(大和樓)를 습격하야 모강습소강사 손서생(孫瑞生)과 손경지(孫慶之)등을 비롯하야 조선인네명 김순애(金順愛) 김봉관(金鳳觀)등사인을검거하야다가 당서에 인치하고엄중취조중이라는바 그내용을 탐지하건대 전긔사명은 아편(阿片)을피우다가 발견된것이라는바 압흐로에 아편을 너어두엇까지알수하야 아직 자세한것은 안놋다 아편밀수입의혐의가 잇는지도모르겟다고한다

淸津支局主催 舞踊의밤開催

【淸津】 로서아의석정막(石井漠)을 발견하는 조선이나오는 천재무용가 조택원(趙澤元)씨일행이 청진에오는긔회를 리용하야 본보청진지국에서는씨 외도구고별 신작무용발표회를긔하야 오는팔월일일밤 공시에 부내 공회당에서 독자위안무용의밤을 개최한다는바벌서부터 성황을 예기하며 특히 본보애독자에게는 입장료를 오할인하여준다고한다

近畿蹴球大會
廣州青年會主催

【廣州】 광주청년회(廣州靑年會)주최와본보광주지국후원하에 제일회 근긔축구대회를 오는팔월 이 량일간 개최하게 되엿는데 다수 참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愛慾의彼岸 【81】

李光洙 作
金庚穆 畫

혜련은 집에 돌아와서 안ㅅ방에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젓다。다 남아빠진 장이나 삼자니、이부자리니 모도가 어머니의 손때 무든것이엇다。행길에 내다가 버려도 아모도 집어갈 사람도 업는물건들이언마는 어머니는 그것을 무척 아꼈다。혜련의 생각에는 이해할수업스리만큼 아꼈다。혜련은 그런것들을 돌아볼때에 슬펏다。

그리고 그 아래목 이때ㅅ동안이나 어머니가 알코 피로워하던 그 아래목、꺼머케 겨른 장판에、어머니가 누엇던 요ㅅ자리만에 노라케 새로운 맛을 보이는 그 아래목、그리고 어머니가 벼갯을 다녀허두던 그 벽장문。

혜련이는 눈 아페 어머니의 모양이 보이는듯하야 몸에 소름이 끼치게 무서웟다。그 무서움을 죽이기 위하야 혜련은 방ㅅ바닥에 얼굴을 비비면서 울엇다。

문임은 혜련을 이리안고 저리 안는면서 따라울엇다。혜련이가 우는대로 문임도 끗업시 눈물이 솟앗다。혜련이가 느껴우는이만큼 문임도 못지아니하게 느껴울엇다。

『사람이 죽는게 무엇이요 언니?』

라고 혜련은 울다가 울다가 고개를 들어서 문임의 눈물에 저즌얼굴을 보면서 물엇다。

『누구는 안죽나? 다 한번씩은 죽지』

하고 문임은 깨달은것처럼 대답하엿다。

『다 죽지? 나두 죽구 언니두 죽구?』

하고 혜련은 허공을 바라본다。

『그럼。나구 죽구、나구 죽구―그게 세상이아니야?』

하고 문임도 한숨을 쉰다。

『나두 어서 죽엇스면―응 죽엇스면』

하고 혜련이가 또 울기를 시작한다。

『왜 그런 소리를해、혜련이? 왜 그런 숭헌 소리를해?』

하고 문임은 혜련을 껴안는다。

『언니는 오래 살구십소? 언니는 세상에 오래 살 재미가 잇는것 갓수? 난 도무지 세상이 구찬키만 해。오래 살면 살수록 서러운것만 일만 만흘것 가태。마음만 때려워지구。그럼 새옷을 입구댕기면 때려워지는 모양으로 사람의 마음두 세상에 오래 살면 때려워질것만 가태。나는 아직 때려워지지 안흔 깨끗한채로 죽어버리고시퍼。―살면 무얼해? 무슨 조흔 일이 잇어?』

하고 혜련은 제 손ㅅ질을 펴서 본다。마치 무슨 때려운것이 뭇지나아니하엿나하는드시。그러고는 임종시에 어머니의 손이 겁고 쭈굴쭈굴하고 숭업던것을 생각한다。혜련의 마음에 긔억되는 어머니의 모양은 아름다운것은 아니엇다。내 어머니라는것을 떼어노흐면 보기숭한 모양이엇다。알른 동안외、더구나 임종 가까운 얼마ㅅ동안의 어머니의 마음은 그얼굴보다도 배 숭한듯하엿다。그저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탐욕과 그리고 죽기실여하는 구차스러움과―

『어머니 그런것이 다무엇이야요? 깨끗하게 고요하게 것브게만 생각하서요』

하고 혜련은 이상차나 그 어머니에 간하리만큼 그 어머니의 번뇌를 보기가 딱하엿다。

그것이 혜련의 마음ㅅ속에서 정답고 아름답고 자비스러운 어머니의 긔억의 말살해버렷다。혜련은 어머니의 아름답던 착하던 긔억만을 모아보려하엿으나 숭한 긔억이 넘어나 강하기때문에 다 가리워지고말앗다。

『사람이라고 다 그럴까? 아모리 오래살아두 깨끗한 사람도잇지』

하고 문임은 위로하엿다。

『어듸 잇수? 그런 깨끗한사람이 어듸 잇수?』

하고 혜련은 반항하는드시 어성을 노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잇는 곳이잇다 하면 난 그 사람들을 사는데로 갈테야、언니。죽어서、이 몸둥을 끈허서 갈수잇는 곳이라 하면 당장에 이 몸둥을 어버릴테야、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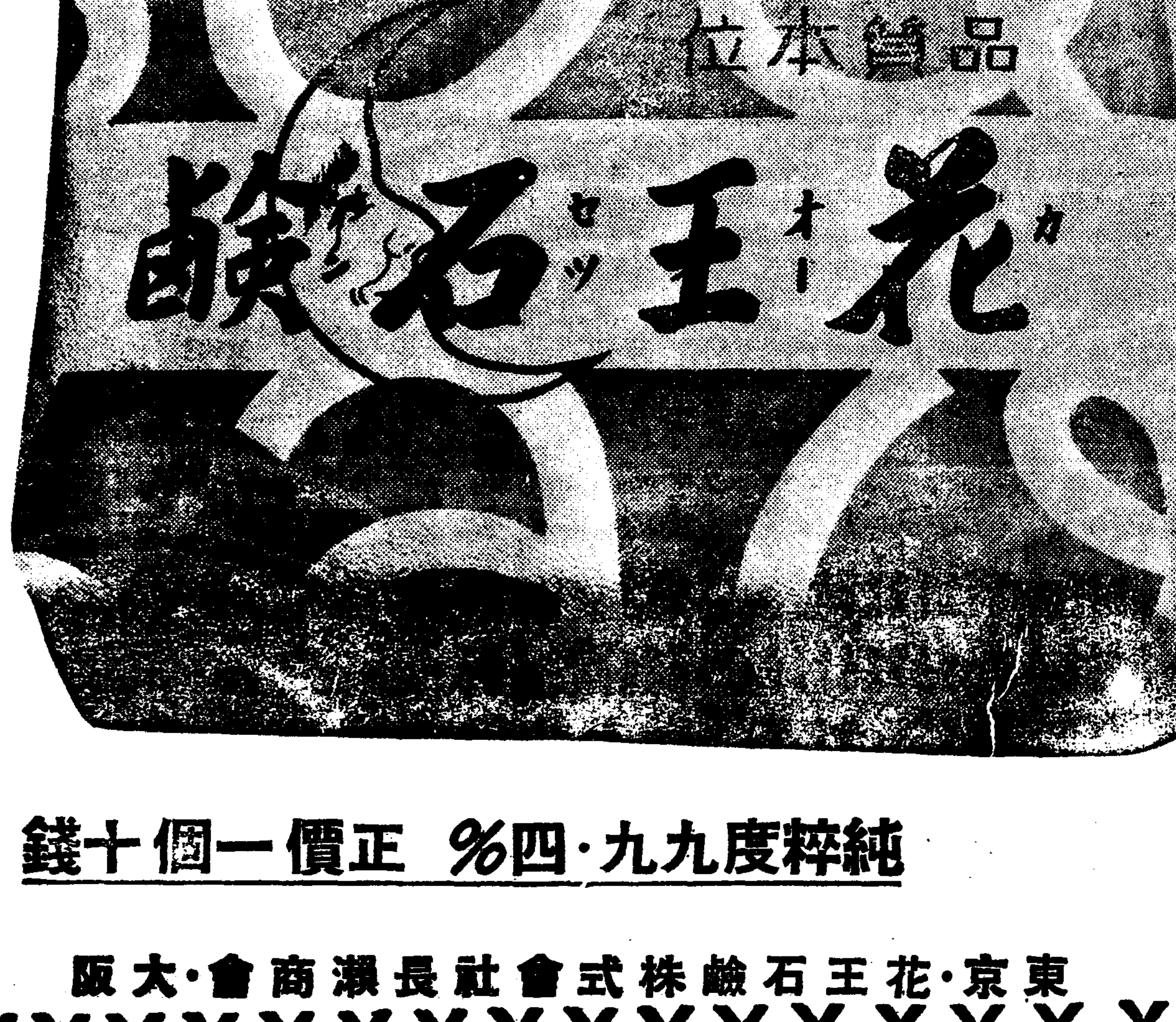
하고 무서우리만치 불안하는 눈으로 문임을 노려보앗다。

品質本位

花王石鹼 (화왕석감)

빗나는 健康美!

여름은皮膚의新陳代謝가
가장旺盛한때입니다
一年의健康을約束하는好
期입니다
花王石鹼으로恒常淸潔하
게하고皮膚機能을마음끗
活動식힙시다
花王石鹼은살결을깨끗이
하고潤滑하게하야靑春美
에빗나는品質最上의비누
입니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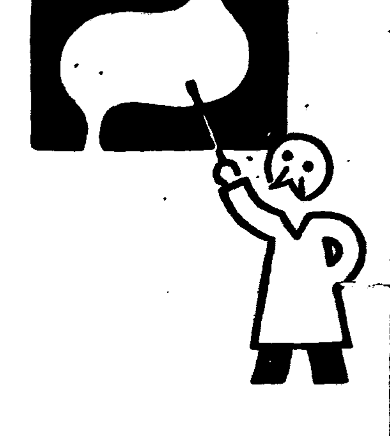
東京·花王石鹼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胃腸病仙藥
景 神秘丹
大邱達城公園入口
本舖 景春堂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朝鮮日報社釜山支局電話二一八九七番

●頭痛에ノーシン(노ー신)
效果는期待以上! 더구나
胃腸에안상하는理想的頭痛藥●



蛔虫은胃·腸·心臟·肺를害틴다。

下虫劑
マクニン (마구닌)

動果잇고먹기도쉽다。

.20	.30	一日分
.60	.75	十大
1.00		歲人
2.00	1.35	

東京 大阪 ……

·補精强壯劑·
眞品海狗腎
說明書請求하시면卽時보내드리겟습니다
大洋貿易社
振替釜山七九二二一二

廿七日(月曜)
第一回 午前十一時五十分
第二回 午後二時十五分
夜之部 同六時五十分
新興キネマ提供
阪妻プロ超特作時代劇
原作多賀谷三平
劍戟 千葉周作
阪東妻三郎主演
岡田眞久也、森木壽子、
新興キネマ現代劇
原作 川口松太郎
監督溝口健二
祇園祭
岡田時彥、木林綠子主演
菅井一郎、鈴木澄子助演
新興キネマ京都時代劇部特作
原作 涉田……
疾風の逸太郎
恩響子守唄
大谷日出夫、毛利錦子主演
永樂町
電話……番
中央館

七月廿七日……
每日三回晝夜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
夜間入時開映
大衆料金 階下十錢
……
大作 공고ー部隊
……
名匠 淸水宏氏監督
現代劇 若旦那春爛漫
主演 坂本武氏 武田春郎 …… 近衛敏明
……
怪盜捕縛
……
廿世紀特作全發聲映畵
名篇 다구엔젤
黃金町五丁目
電光 …番
第一劇場

東銀株主懇談會 '株主無視를痛擊'

廿五日은十時間동안議論沸騰 廿七日도繼續開會

東一銀行의 株主懇談會는 豫定대로 廿五日午後二時에 同行內에서 銀行側으로 閔取締役, 大植專務成榮豊, 常務市川의三氏와 株主側으로는 五百株以上所有者의 大株主와 一部株主의 十七名이 出席하야 열엇다 이懇談會는 今月卅日에 열릴 定期株主總會를 압두고 미리 (一)頭取制의廢止件 (二)取締役會長의新制度採用件의 定款改正 其他에 對한 諒解를 求하라고 懇談會란 形式을 取한것이엇다。그러므로 名稱은 懇談이나 이會의 空氣如何로서 [illegible] 總會의 將來를 [illegible] 目을 끄을지 안흘수업게되어잇엇다。

幹部의應答模糊 定欵改正件을反對

閔、成兩家擴張이라고追窮

이懇談會가 어떠케進行되엇는가에 이에잇서 銀行側으로서는 누가 하기로할것을 定치못하고 [illegible] 다음과 갓다고한다 開會되자 곳 銀行側으로부터 懇談會를 열게된 [illegible] 에 對한 [illegible] 하엿다 [illegible]

(一)頭取制를 廢止하고 取締役會長의新制度를 採用할 必要가 어데잇는냐는 反對意見이 잇섯다

(二)頭取制를 廢止하자고 누가 發意하엿느냐고하는 株主質問에 對하야 閔頭取는 이것은 成專務의 發意라고 [illegible]

(三)株를 만히 가지고 잇는 것만 밋고 頭取가 그만두고 自己의아들 또 專務가 그만두고 自己의 子하를 代身하기로하야 閔成兩家의 擴張과 가리랑은 多數한 株主를 無視하는 暴擧가 아니냐는 質問

(五)頭取制를 廢止치아니할 뿐만아니라 現頭取와 成專務가 그대로 잇서가지고 行務에 一層 注力하여야 할 것이라는 株主의 希望에 對하야 成專務는 그러면 그대로 잇슬생각도 잇다는等……

그밧게 配當問題其他에 對하야 株主로부터의 質問과 論議等의 應出로 銀行側은 매우 困境에 빠지고말엇다 이와가티 株主의 質問이 猛烈하야 到底히 株主의 諒解를 求할길이 보히지안코 할수는 夜十二時에 일단 休會로 하엿는데 이會議는 何等의 收拾을 取하여가지고 會의形式을 取하여가지고 二十七日午後四時부터 同行內에서 續開키로되엇다 그러면 다시 열리는 所謂株主懇談會는 어떠한 歸決을 보게될가

西崎理財課長 午後九時臨席

廿五日에 열린 東一銀行의 株主懇談會狀況에 對하야 西崎理財課長은 警務로서 聽取하다가 이會가 容易히 안끗남을 듯고 夜九時 懇談會에 直接出席하야 散會할때까지 잇섯다고한다

(四)市川常務도 當局 朝銀의 關係가 잇스나 頭取와 專務와 한가지로 連帶責任을 지고 그만두거나 或은 一課長에잇드래도 實務를 잡을수잇는데 그와反對로 專務로 昇格함은 不當하다

市川常務朝銀訪問

廿七日午前에 東銀의 市川常務는 朝銀에와서 朝銀行當局者에게 廿五日의 株主懇談會에 關한 報告를 하고 도라가다고한다

水稻全面積의 品種更新을計畫

四個年에年年五十萬町步식 年額二十萬圓補助

朝鮮米의 品質向上에 根本的重要性을가진 水稻品種의 更新에 就하야서는 目下第三次更新計畫이 進行中인데 同計畫은本十一年度로서 滿了됨으로 農林局에서는 第四次更新計畫을 立案하고잇다

購買約高는 廿五日現在로 硫安 廿六萬叺 硫燐安四萬叺 石灰窒素、過燐酸、配合、調合等 總肥約三萬叺 合計卅三萬叺으로 前年度實績에 比하야 約七萬叺이 增加이며 硫安과 如한 今春의 市價暴落等으로 相當히 減少될것으로 보이엇스나 豫定보다 도리어 一萬叺增加이라한다

局課、各道分共히 今月中에모이 게 됨으로 八月中旬 總督府에서 部門에 對한 準備委員會를開催키로되엇다 그러나 調査委員會調査會設置에對한 官制의通過를待하야 正式으로任命할터인데 半數以上은 日本內地로부터 招聘케되리라한다

이第四次計畫은 從前의年額八萬圓의 補助額을 一躍二十萬圓으로增額하야 年年五十萬町步를 更新하고 四個年으로全面積의 品種更新을 圖코저하는것이라한다

産業調査會

議案月末에提出

朝鮮産業經濟의根本的方針을議할 朝鮮産業經濟調査會設立에就하야서는 總督府殖産局에서 準備中이든바 調査委員의銓衡도 終了되고 提出議案、施設計畫도 各

朝鮮信託勘定增加

朝鮮信託의七月十五日現在信託勘定帳面末은 (單位千圓)

不動産信託	一六、四三二
特定金錢信託	三、〇〇八
金錢信託	三九、二〇一
其他信託	一九一
合計	五八、八三四

前期末에比하야 八十六萬八千圓 增加를示하얏다

西朝鮮은 尙移秧不能

中部地方은過雨로田作被害 去二十四日부터의 降雨는 京城地方을 中心으로서 相當한雨量에 達하얏는데 用水不足인 西朝鮮方面은 降雨가적고 移秧不能에 陷한 區域이 相當한面積에 達한 模樣으로 東拓其他農場에서 는 代作을 準備中이다 또 中部의 雨量이만흔 地方의 西瓜、甜瓜其他田作은 相當한被害가잇서서 念慮된다한다

朝窒肥料 販賣激增

朝鮮內卅三萬叺

朝窒販賣會社의 本肥料年度의肥

夏秋蠶一回豫想

四十三萬一千枚掃立

比前年三分六厘增

農林局發表＝今年의 夏秋蠶掃立期는 中部及南朝鮮地方은 六月下旬乃至九月中旬北朝鮮地方은八月上旬乃至八月下旬의 豫想이다 各道夏秋蠶掃立豫想總數는 四十三萬一千六百五十二枚로 前年夏秋蠶掃立數四十一萬六千七百七十五枚에 比하면 一萬四千八百七十七枚(三分六厘)의 增加인바 이것을 地方別로보면 最高全南의 一割一分一厘 全北의 一割二厘 最低는咸南의 三厘이며 減少된 것은 平南의 九分七厘를 最高로

平北九分四厘黃海道一分五厘의三 道이다 桑葉의 繁茂狀況은 黃海道의不良京畿道의一部不良임과 平南平北의 普通인것을 除하고 其他 道는 모다良好하얏다 蠶兒發育狀況은 大槪良好하다 이에各道別로 評記하면如左하다

	掃立枚數	前年實數比較
京畿	三六、七二枚	壬三枚
忠北	三六、一三	一、八六六
忠南	三一、〇〇〇	五五〇
全北	三四、五一〇	三、一八六
全南	五五、三五五	五、二二〇
慶北	八〇、〇〇〇	五、九三二
慶南	三四、二五五	一、九一五
黃海	二九、〇〇〇	▲二、二〇四
平南	二四、八〇〇	▲二、三六一
平北	二九、〇〇〇	▲三、〇六〇
江原	三四、〇〇〇	三、五〇四
咸南	三三、〇〇〇	一〇〇
咸北	三、九〇〇	六二
合計	四三一、六五二	一四、八七七

邑面財政大窮乏

歲出入兩面에原因

內務局에서는 近年朝鮮內地方財政의不均衡이 顯著하고 特히本年度부터 實施한地方稅制整理의結果는 이傾向에 新拍車를 加한것이잇서 過般의道知事會議의 要請도잇음으로 朝鮮에서도 地方財政交付金制度創始의 研究를進行하고잇는바 內務局에서近年의 地方財政窮乏化의 原因에對하야 調査한바에 依하면如左히 歲出歲入의 兩面에 亘하야잇다 卽

◇歲入方面

一、富의都市集中傾向表面化結果 地方財源枯渴

一、農村의 近年의 經濟的不況에依한 擔稅力의低下

一、稅制整理에依한 國稅移管

一、國有林 國有地 官業其他 營利産業의 地方稅附加稅廢止

나、彈力性잇는 戶數割等戶稅에 [illegible] 所得稅附加稅 改正한때문에低下

◇歲出方面

一、委任事項의 負擔轉嫁及事業增大에 地方産業核興의 乏하低下

一、國費補助事業方面의膨脹에伴하야 地方費增大

一、自動車交通發展에 伴하야道路、橋梁等의工事費增大

一、災害事故의 頻發에 伴하야救濟事業 補償費等

一、失業救濟其他의 事業費膨脹等으로 窮乏이特히 顯著한것은 地方財政中 邑面財政으로서總督府에서나 邑面財政의 更生도對照하야交付金制度를 考究中이다

京城電氣定期總會

京城電氣會社에서는 二十七日午前十時부터 東京丸之內工業俱樂部에서 定期株主總會를열고 決算及利益金處分案 重役改選의件을附議한바 取締役에는 石坂泰三氏 監査役에는 木本倉二氏가 選任되고 株主配當은 前期同樣 一割據置로 決定하엿다

(以下單位千圓)

前期繰越利益金	[illegible]
當期利益金	一〇、五六六、九三二圓
合計	一二三六、七九三

이것은 處分內容

法定準備金	六〇〇〇〇、
別途積立金	五〇〇、〇〇〇、
役員賞與金	五〇、〇〇〇
配當金	五六〇、〇〇〇
後期繰越金	四五六、七九三、

取引停止

(七月二十二日) 京城南大門市場內金鐘玉◀京城府通仁町一五七番地 洋服百貨店朴淳炳

經濟界消息

○殖銀總會＝殖銀에서는八月十四日午前十時부터 同行會議室에서定時總會를 開催하기로決定하얏는데 決定된附議事項은如左하다

一、上期諸決算案承認件

二、同上利益金分配案議決件

三、殖産銀行令改正에伴한定款變更件(副頭取設置)

四、故理事植野勳氏遺族에吊慰金贈呈件

이外에 故植野勳氏의 補選을行키로되엇는데 副頭取設置에伴한理事一名의 補選을行할與否는未定으로 有賀頭取의이에對한處置如何가 注目된다고

經濟すゞ錢

廿五日 東銀株主懇談會는 午後二時부터 午前零時까지 長時間 議論沸騰

◯閔成兩家의 家族銀行이 나는 痛擊에는 赤面 햇슬텐데

◯勢力暗鬪 公共機關의 幹部된者 모름직이 反省할지저

◯石油工場 新設申請을 省局은 一蹴하리라고

◯朝鮮石油가 잇는데 애당초에 申請하는사람이 잘못

商況 【廿七日】

株式 賣崩後에 反撥

前場東新低 休日을지난今前場은 東新에 戾賣人氣優勢하

日産逐八十圓

文武兼全格의株

【東新이 人氣가 喪失된것을보

後場反高

後場은 押目買物로 反騰되엇스니 東新百二十四圓五十錢、日産八十圓關門突破로 五十錢、大新六十八圓八十錢 日産新二十六圓六十錢에까지 올는고 別欄가리少軟大引

東新또賣叩

但底堅味는不無

取引所改革、當所株上場禁止問題로 流說이줄알면서도 東京東新은 百二十圓三十錢에投崩慘落되고 百二十四圓十錢에까지 떠러진幅의 半値戾가잇섯스나 廣田內閣庶政一新乃至新國策의 體面上 或은時代的情勢로라도 過當投機의 抑壓은 難避의事情下에잇슴으로 東新에對한大局的不安은 不去하고 弱氣株로서 顚落된 實情임으로 東新은 大勢가 一致된 關係로 東今前場은 또軟派의賣叩로再崩이엇스나 二十四日再立會日의最低價百二十圓三十錢에까지만 떠러지고 百二十一圓丁에底堅味가잇게前場을終하얏다

三月의低價 卽二、二六事件에依한恐怖投賣時가 百十九圓三十錢이고 이번取引所問題로 떠러진갑이 그때보다 一圓高位인 百二十圓三十錢으로 今前場低價가 또百二十圓三十錢이엇스니 이로써 目前一段底固의感도 업지안헛바는 果如何?

重要商品界事情

人絹의市勢觀

大勢的으로 보면 將來 統制時代에 드러가는以上 低價의 水準은 漸次 노파질것이 必至인바 正調가 아닌것을 [illegible] 不足하다는 狀態임으로 人絹은 實需方面에는 八九月物이 아즉도 不足하다는 狀態임으로 賣行이 아니냐가……

◇

그러고 스테풀의 增産으로 어느程度까지 人絹增産의 抑制가 當分 押目買가 有利 그러라고 해서 昔日과가튼 大市勢는 모든點으로 보아 到底히 期待할수업스므로 過度한 投機는 避하고 實需本位의 取引이 成果가 잇슬 듯 하다고。

實物前場取引

利回로 八十三圓은 當然하다고보고잇다

更히 全然的人氣를 誘發케되면 百圓臺도 豫想할수잇는터로 日立、日鑛等의 躍進과 相俟하야 日産系는 特히 注目되며 日産의 花形株로서 時代展開가의期待되는 模樣이엇다

▲秋田木材新三〇〇〇 ▲伊那電鐵三四五〇 ▲同新四六〇 ▲片倉製絲二二四〇 ▲東滿洲一五八〇 ▲라사에工業八〇〇〇 ▲同新三一〇〇 ▲東亞麥酒一九〇〇 ▲昭和肥料四三七〇 (取引高一八〇枚)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 情勢待人氣로全혀 焦付商狀이오 內外債共히不變이며 僅히實物의 小口取引이顯著할뿐으로 米貨債는 處分賣로 六分半五分半共히 三、四十錢低落이엇다

● 甲五分利 一〇一、六五

● 二回四分 一〇二、九〇

● 佛貨四分 一九八、九〇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六五 ▲一回四分 一〇二、九〇 ▲二回四分 一〇二、六五 ▲第二三五分 一〇二、六五 ▲二八年一〇一、九〇 ▲佛貨四分 一九八、九〇 ▲米貨六分半 四〇〇〇

期米 押目買로反高

前場先低後高 東阪神三市場의 休會로當地는 單獨立會이엇는데 一休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二十三錢인 再昨昨後場止値보다 十三丁低寄하고 三十一圓〇六錢인昨止價보다의 六丁低로寄하얏한 後 阪地二節二十一錢으로 三十四錢까지 繼返하엿다가 結局二十九錢에 止場함을奪하야 十九錢까지 昂騰하엿다가 十三錢에 場을止하엿다

米 所謂中伏「허리」의移秧

에 中部地方은數日前의豪雨로未植地面의 移秧이 大壯觀▲只今移秧을하여도 四割乃至五割의 收穫은可할수잇다 云云 그러나 아프로의 天氣如何가問題 ▲今朝初付는 阪地十三丁反落과 共히當地先限三十一圓 高値못하고 反落 十餘丁이나 反落 ▲그原因의 所在는 期米買方으로서 利喰로汲汲하거나와 大體는 正米의 實需가 低落을 許하지안흠으로 淸算亦强硬한모양

市場歲

株 東新은 또賣叩되어百二十圓三十錢으로 二十四再立會日 低價再現이나 떠러지지안코 「스톱」◀東新賣 日産買 流行이잇하나 東新도底堅味가 잇다할가?◀日産은 畢竟八十圓臺乘 買方第一目標出現 探算的投機株로서 東新에代位登場 百圓目標論이有力▲現日本經濟機構가 總變革되지안는限 東新이全經濟界의 바로메타임에는 틀림업고 其外에 東新을 代位할資格이있는것이업다 東新禮讚論이再擡頭▲漸注的去勢論이 만흠이때 十分吟味할論이못

賣方利喰汲汲

市勢意外下漲

二年續凶作의 實需는 日本內地稻作의 樂觀과 南朝鮮의豐作說又는 旱地中部以北의 豪雨治足임에도 不拘하고市勢는 意外頑强味를 添하야 一休今朝에阪地十三丁反落과 共히 겨우六丁

安이다 그러나 一圓臺의 割破는時間問題로 先限時代에 實現되지못하면 中限時代에入하야 十月限의 大下帥發會와共히 割破하고야말것으로觀測된다 果如何?

東益宮商店

株 米 東益宮商店 光皿 金益證券

後場反高

後場은 三十一圓十五錢에 一丁高로寄附하고 二十八錢四本에 止場하야 同後

難關의一圓臺

割破는時間問題

早地인 朝鮮中部以北에 豪雨가 襲來하야 所謂中伏「허리」의移秧으로 未植의地面에는 普通移植中인데 今後의發育이 마치 何如할지는몰으나 今日의現狀으로는雨後豐作의 樂觀을불하야 休日中의氣配가못 軟弱하엿스나 今朝에入하야 阪地는 十三丁反落 三十一圓〇六錢으로 當地는 六丁低인 三十一圓〇

今日財界 (廿七日)

◆米 (單位圓)

仁川當限米	先限	三二、元
大阪當限米	先限	二二、三
◎二等米	一石	三〇、二
正租(仁川)一等	一	[illegible]
一斤	價三等	[illegible]

◆株 (單位圓)

朝鮮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金FAQ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神戶、大阪 ▲買方＝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弱含

定期續落을反映하야 五錢低唱이나 依然實物은 적엇다●三等三〇、九五 四等三〇、六五 一等白米三三、五〇

仁川少弱

正租高에後援되여 意外下漲이나 買方은 慎重히 當用小口뿐이고 期米低落을 보고 五錢低氣配이엇다 ●三等三〇、九五 四等三〇、六五 一等白米一一五、二〇

釜山膠着

新現實物이잇스나 買氣一息으로 小盤의取引이 散見될뿐이오 一般은 大槪形勢傍觀

大邱弱含

産地의實氣는 極味를欠하얏스나 定期의軟調物로 買氣는 依然不揚이오 繼續하야 人氣沈滯 氣配弱含이엇다 ◎三等三十圓七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五錢

群山軟化

日本內地取引의 中絕狀態로 一般이 氣迷가深하고 期米低릉稱하야 市勢는 五錢軟化이오 産地의 實氣는 極히 消極的이엇다 ◎三等三十一圓三十五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木浦强含

專히來月待로一般이傍觀人氣이나 市中實物拂底로 市勢만 十錢頑强이엇다 ◎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

人氣로繼續하야保合이엇다 ◎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 一等白米十三圓三十八錢

仁川正米減少

本月二十五日現在仁川在荷米는 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 一一、二二〇叺의 減少를示하엿는데 在品을細別하면 左記와 如하다

▲安米(政) 一七九、五三〇叺(民)三三〇、四三九叺 五斗入一、三九七叺 五斗入四〇叺 ▲正租叺入(政)六、九三一叺(民)五八、五二四叺俵入(政)一、六六、五八六俵(民)一、三六九俵 ▲大豆二〇、四七〇叺 大麥(白)

株 米 京城南大門通 東 期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二、四三〇叺(課) 三〇〇叺四	
八九俵 ▲小麥 一八四叺 ▲粉	
白米一、一七六叺 ▲栗六、三	
八八俵 ▲荏子五〇〇叺 ▲黍	
五、一八七叺 ▲蕎麥三〇〇叺	
一七叺(審丸) ▲糯米一、二	
▲日本內地米三、八九八袋	
一〇、〇九八袋	

株式 京城本町 期米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土金 分析 賣買 石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ノ二〇 電話本局②二三一六番 振替京城一一五四番

土金 福 石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 [illegible] 町二丁目九 電話本局四八五六

市況表 (廿七日)

◆海外經濟 廿七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廿七日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綿糸布市況 廿七日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京城搾粕冲價 [illegible]

◆鑛油冲價 [illegible]

◆日本麥粉市況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況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期米 廿七日 [illegible]

◆大期郎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三品 [illegible]

◆大阪市中金融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illegible]

◆大阪綿糸 廿七日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海外棉花 [illegible]